雲門

불기 2556년
여름호
통권 제121호
雲門僧伽大學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통권 120호 봄, '운문', 댓글

입학 전 보았던 운문지는 '나도 언젠가 운문인으로 이 아름다운 사진과 글 속의 한 면에 스며들길…….'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직접 운문인이 된 지금 처음 받아본 운문지 안에 실린 도반스님의 글! 그 안에 저도 들어가 있는 듯하며, 앞으로의 운문지 안에서도 그 안의 글자 하나하나에 운문인으로의 생활이 녹아들길 바래봅니다. / 우담

"우리, 우리 하지 말아요, 우리 안에는 돼지가 살아요." 봄 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었어요. / 법일

봄호 운문지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단아하게 서 있는 느낌과 봄의 상콤함이 전해졌습니다. 글은 차례법문 〈승가의 현존에 감사하며〉를 읽고 한국의 승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풍경소리 〈상좌 선우에게〉라는 편지글입니다. 수행자로서 어떻게 가야 지혜롭고 올바른지, 또한 은사스님의 겸손함과 상좌스님에 대한 믿음이 절절하게 느껴져 스크랩해놓고 두고두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명우

본지에서 본 〈봄은 가도 꽃은 남고〉라는 법정 스님의 글이 가슴에 박힙니다.
운문사에서의 첫 철, 첫 봄을 맞았습니다.
정랑 앞 목련꽃의 은은한 향에 하루하루 행복해 하는 요즈음,
꽃이 져도, 아쉬움 없이 계절을 보낼 수 있는 건,
내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봄은 가도 꽃은 남듯', '운문사에서의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문인으로서 살아지는 것이라고'
깊이깊이 믿으며. / 종윤

불기2556년 통권 제121호 여름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일중일체다중일 中 切多中 명성
06	교수논단	불살생계를 통해 본 불교의 생명윤리 [2] 진광
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제9회 유엔 위삭의 날(UN DAY of VESAK) 참관기 원묘
14	풍경소리	내 상쇠에게 보내는 글 법희
16	특별기고	외도가 된 종정과 초기불교도의 착각 방경일
20	자유기고 하나	놀리비아 여행기 덕현
23	想	용맹정신 현사
24	자유기고 둘	부처 되는 길 지한
26	담소	아수 가난한 인연 장철문
29	운문, 운문인	꽃보다 고운 우리는 천산불 편집부
30	학인논단	현대불교음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선하
34	차례법문	소임을 산다는 것 지원
36	수행의 두레박 하나	자심귀명례 나경
38	수행의 두레박 둘	출가 그 후, 운문인으로 서기까지 종윤
40	산사의 별	둘을 건너다 법일
42	사찰탐방	오천사로 귀어 옴사양 영조
45	깨달음으로 가는 길	산석山色 편집부
46	끝없는 여정	자유로운 영혼, 종림 스님 도우
50	이 한 권의 책	STEVE JOBS, "thinking differently" 지호
52	운문논평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통권 121호, 여름, "짙은달"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밍성/ 운문승가대학 회주

지난 6월 12일부터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에서 세계불교도들의 축제인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토론한 주제는 '21세기 불교 생태환경 사상과 수행'입니다. 이 시대 생태환경의 문제는 현존하는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토론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실천적인 삶과 사고가 변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생명평화의 사상은 세계의 어떤 철학, 종교보다도 가장 생태환경에 친화적인 사상체계를 갖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이론으로 이 사상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초기의 가르침인 연기법으로 살펴봅시다.

此有故彼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此起故彼起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此無故彼無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게 되고
此滅故彼滅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된다

이러한 연기법의 논리에서 볼 때 한 개체의 본질이란, 원래부터 타고난 자기만의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인연에 따라 설정되는 가변적인 것이며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상조사 〈법성게〉에서는 '개체 속에 전체가 반영되어 있고, 전체 속에서 개체는 각각의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一中一切多中一)' 고 한마디로 명료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름의 절정인 삼복의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운문사 채소 밭 가장자리에는 이른 봄에 심었던 옥수수가 어느덧 자라나 산들거리고 있습니다. 긴 잎사귀가 한삼을 낀 무용수의 팔같이 보입니다. 오직 옥수수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알갱이는 보이지 않고 줄기가 자라더니 잎이 무성해진 것입니다. 어디에도 본래의 알갱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알갱이가 죽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깊이 바라보면 줄기 속에서 알갱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갱이와 줄기는 두 개의 다른 개체가 아니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연속일 뿐입니다. 곧 줄기는 미래를 향한 알갱이의 연속체이며, 알갱이는 과거를 향한 줄기의 연속체인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다 서로 이어진 연기적 존재인 것입니다.

연기법에 확신이 있다면, 자연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며, 분별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상생해야 할 관계입니다. 벌과 나비가 꽃의 향과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고 꿀을 채취하듯이 서로 상생하는 반야지혜를 가진다면 모든 존재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생태적 삶이 될 것입니다.

불살생계不殺生戒를 통해 본 불교의 생명윤리 2

진광 / 운문승가대학 학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불교의 생명관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5. 나오는 말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1) 불살생계의 내용

계율은 불교윤리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계는 범어로 '실라(Sīla : 尸羅)'라고 하는데 금지·금제의 뜻을 가졌으며 소극적으로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힘이고 적극적으로는 만선발생萬善發生의 근본이다.

① 불살생·불투도·불음행·불망어·불음주 – 소극적
② 자비·복덕·청정·신실·지혜 – 적극적

율은 '비나야(Vinaya : 毘奈耶)'인데 '조치調治한다' '조복調伏한다'는 뜻이다.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업을 조절해서, '제지制止한다'는 뜻이 있다. 身·口의 2업은 외부적 행위로써 결과가 되고 意業은 내부적 행위로써 동기가 되는데, 율의 역할은 주로 외부적 행위인 신·구 2업을 정도로 이끈다. 이상으로 보면 계와 율은 양자의 구별이 있으나 흔히 계율을 붙여서 '경계하고(戒) 규율있게(律) 한다'는 뜻으로 같이 취급하기도 한다.[27]

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재가계와 출가계로 나눌 수 있다.

재가계 : 삼귀의계·오계·팔관재계·보살계
출가계 : 사미계·사미니계·식차마나니계
비구계·비구니계·보살계

그러나 이 중 보살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법들은 불자 7衆[28]으로 구분하여 재가·출가에 있어서 자리적 소승적인 반면, 보살계는 대승계로써 불자 7중 전부를 거두어들이는 이타적 대승적 계법이다. 여기에는 보살의 10중대계와 48경계가 있다.

이 중 오계는 출가나 재가에 있어 가장 근본 되는 계로써 10선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10선업은 신·구·의 3업이 주재한다. 특히 신·구업 가운데 탐·진·사견의 의업을 떠나는 것이 근본인데 오계는 각각 이것을 닦는 불자의 생활윤리가 된다.

불교윤리의 목표는 삼업의 정화 - 즉 10선업의 완성 - 이다. 불교의 윤리성은 팔정도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팔정도는 계·정·혜 삼학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삶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써, 특히 계의 항목들 – 바른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정진 – 은 불교윤리의 기초가 된다.

불교의 근본계율인 5계나 10계 중 제1계는 불살생계이다. 불교의 모든 계율 중 청정을 생명으로 삼는 스님들만이 지키는 구족계具足戒의 제1계만이 '음행하지 말라' 는 불음계일 뿐 나머지 재가계, 보살계, 사미계 등은 모두 불살생계를 제1계로 삼고 있다.

법장法藏은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에서 불살생계를 첫 번째 계목으로 제정한 이유를 열 가지로 설하고 있다.

① 생명을 끊는 것은 업도業道를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서는 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승이나 대승계에서 다 이 살생계를 제정하였다.

② 대비심을 어겨서 해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살은 무엇으로 체를 삼느냐고 물으면 마땅히 대비로써 체를 삼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다른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수 있어야 하거든 하물며 다른 생명을 해쳐서야 되겠는가.

③ 길러준 은혜를 등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육도의 모든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인데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④ 수승한 연緣을 어기게 하기 때문이다. 혹 개미가 나보다 먼저 성불하여 그의 제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은 알기 어렵지만 만약 개미의 목숨을 해치면 저로 더불어 인연이 없어져서 제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어서 모두 장래에 법기法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⑥ 보살의 무외시無畏施를 어겨서 잃기 때문이다. 불살생계를 가지는 까닭은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베풀어주는 것이다.

⑦ 사섭행四攝行[29]을 어기기 때문이다. 보살의 이리二利 가운데 이타利他가 우선이 되나니 만약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버리게 된다면 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⑧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보배가 가득 있다 하더라도 능히 목숨과 바꿀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보배를 훔치는 죄와 같다. 또한 일체 중생들이 칼과 몽둥이를 두려워하고 목숨을 사랑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보살의 대행은 중생을 의지하여 얻는다. 오히려 은혜 갚기를 생각해야 하거늘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

⑩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삼세제불의 가업家業의 법이 그러하니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다.[30]

27) 법륜 편역, 『계율강요戒律綱要』(서울 : 우리출판사, 1994년), 5~10쪽 참조.

28) 7衆이란 비구(남성 출가자)·비구니(여성 출가자)·사미(어린 남성출가자)·사미니(어린 여성출가자)·식차마나(비구니가 되기 전 2년간의 사미니)·우바새(재가남성 신도)·우바이(재가여성 신도)를 말한다.

29) 사섭행이란 네 가지로 중생을 포용하여 이롭게 하는 행으로 보시섭·애어섭·이행섭·동사섭이다.

30) 『梵網經菩薩戒本疏』卷 第1(大正藏 第40卷), 609쪽 下段~610쪽 上段.
初殺戒者 略由十意 一由斷生命業道重故…二由違大悲心故…三由背恩養故…四由違勝緣故…五由有佛性悉是當來法器…六違失無畏施故…七違四攝行故…八損害重故…九為報恩故…十法爾故 三世諸佛家業法爾 不念加害 利益眾生故也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불살생계가 첫째로 나온 까닭은 근본적으로 생명존중 정신과 자비심 그리고 평등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서 단명하는 과보를 받고, 도적질을 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져 가난한 과보를 받으며, 음행을 하면 청정한 종자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는 과보를 받고,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져서 불신하는 과보를 받고, 술을 많이 마시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져서 어리석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살아있는 생명 또는 존재를 해치고 죽이는 것은 바로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출가와 재가에 모두 통하는 대승의 보살계인 《범망경》 10중계[31]의 첫째로써 불살생계와 아울러 살생과 관련된 계목戒目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제1 살생하지 말라. – 不殺生戒

'불자들아!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서 죽이는 따위이나, 죽이는 인因이나, 죽이는 연緣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온갖 생명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들을 방편을 다해 구호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제멋대로 하여 거침없이 산 것을 죽이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parajika :가장 무거운 중죄)가 된다' [32]

다음으로 48경계에서 살생과 관련된 계목은 다음과 같다.

제3 고기를 먹지 말라. – 不食肉戒

'불자들이여, 짐짓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 불성종자가 끊어져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짐짓 먹는 이는 경구죄(청정행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를 범한다' [33]

제10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쌓아두지 말라.
– 不畜殺衆生具戒

'불자들이여, 일체의 칼 · 몽둥이 · 활 · 화살 · 창 · 도끼 등 싸움하는 기구를 쌓아 두지 말 것이며, 짐승을 잡는 그물 · 망 · 덫 등의 살생도구 일체를 비축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중생을 죽이겠는가. 만일 일부러 일체의 칼 · 몽둥이 등을 쌓아 두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34]

제20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 行放救戒

31) ①殺戒(살생하지 말라) ②盜戒(도적질하지 말라) ③淫戒(음행하지 말라) ④妄語戒(거짓말하지 말라) ⑤酤酒戒(술을 팔지 말라) ⑥說四衆過戒(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⑦自讚毁他戒(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⑧慳惜加毁戒(자기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⑨瞋心不受悔戒(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 ⑩謗三寶戒(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32) 梵網經 第十卷下(大正藏 第24卷), 1004쪽 中段.
'佛言 佛子 若自殺敎人殺 方便讚歎殺見作隨喜 乃至呪殺 殺因殺緣殺法殺業 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 是菩薩應起 常住慈悲心 孝順心 方便救護一切衆生 而自恣心快意殺生者 是菩薩波羅夷罪'

33) 위의 책, 1005쪽 中段
若佛子 故食肉 一切肉不得食 斷大慈悲佛性種子 一切衆生見而捨去 是故一切菩薩 不得食一切衆生肉 食肉得無量罪 若故食者 犯輕垢罪

34) 위의 책, 1005쪽 下段
若佛子 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鬪戰之具 及惡網羅殺生之器 一切不得畜 而菩薩乃至殺父母尙不加報 況餘一切衆生 若故畜一切刀杖者 犯輕垢罪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나니라. 내가 태어남을 거듭하며 그들로부터 생을 받지 않음이 없었으니 육도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부모이니라.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모든 흙과 물은 나의 몸이요, 모든 화火와 풍風(공기)은 나의 본체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방생업을 행하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라 … (중략)' [35]

일체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중생)을 다 나의 부모로 여긴다는 것 등은 바로 연기론적 생명관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하나로 보는 것이다. 특히 대승계인 《범망경》은 전반에 걸쳐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생명은 보호하여야 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범망경》의 불살생계에서는 살생의 범주를 6가지로 나누고 있다. [36]

① 자살自殺 :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곧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대승계는 심계心戒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명을 해치려는 생각만 하여도 불선업을 짓는 것이라 하여 경계하고 있다.

② 교인살敎人殺 :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을 위해서나 그 사람 또는 제3자를 위해 살인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입으로 설득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사람을 대면하여 살인하도록 가르치거나, 사람을 보내 살인하도록 시키거나, 글을 써서 설득하여 살생을 하게 하는 등의 경우를 지칭한다.

③ 방편살方便殺 :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살생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자객을 숨겨놓은 길로 가게 한 다음 죽이거나 약을 먹여 태아가 죽도록 만드는 것, 음식물 등에 독약을 넣어 먹는 사람이 죽도록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찬탄살讚歎殺 : 죽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이다. 죽음이 아름다운 덕이 됨을 역설하고, 만일 죽음을 실천하면 많은 선공덕善功德을 성취하게 된다고 부추겨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다. 신을 위해 죽는다면 하늘에 태어나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한다면 곧 찬탄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찬탄하고 설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몸으로 찬탄하여 모습을 지어 보이는 경우, 사람을 보내어 찬탄의 말을 전하거나 글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경우 등이 있다.

⑤ 견작수희見作隨喜 : 다른 이가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죽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거나 미워하는

---

35) 위의 책, 1006쪽 中段.

'若佛子 以慈心故 行放生業 一切男子是我父 一切女人是我母 我生生無不從之受生 故人道衆生皆是我父母 而殺而食者 卽殺我父母 亦殺我故身 一切地水是我左身 一切火風是我本體故 常行放生 生生受生 常住之法 敎人放生 若見世人殺害之時 賜方便護 以解其苦難 …(中略)'

36) 註28) 참조.

이 거나를 막론하고, 죽음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다.

⑥ 주살呪殺 : 주문을 외워서 귀신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 인도에는 죽은 시체를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귀주鬼呪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다라毘陀羅'라고 하였다. 아직 다 부패하지 않은 시체 앞에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29일 동안 외워, 귀신으로 하여금 시체를 일으키게 한 다음 물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칼을 그에게 주고 수레에 태워 지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죽이도록 가르치는 주살법이 있었던 것이다. 또 중국에도 나쁜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이는 술법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주살이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살생행위뿐만 아니라, 살생과 관련된 인과 연과 법과 업을 모두 짓지 말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살인殺因은 곧 죽이고자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초로 일어나는 살심이 바로 인이다. 살연殺緣은 죽이려는 마음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살생할 수 있는 구실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며, 살법殺法은 살생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도구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살인과 살연과 살법이 갖추어지면 마침내 살업殺業을 짓게 되는데, 살업은 상대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서 생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된 상태, 곧 살생의 행위를 다 마친 것을 가리킨다. '목숨을 끊어 업이 이루어진 것(命斷成業)'이 살업인 것이다. 붓다는 살생의 인·연·법·업을 짓지 말고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명은 아름다운 덕성과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고 끝없는 능력을 발휘할 근원적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의 숨은 능력은 존중되고 숨김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생명이 가지는 존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불살생 계율이다. 그러므로 이 계율을 지키는 방법은 죽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데 있지 않고 적극적인 생명존중과 생명가치의 발휘에 있다.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아름다운 덕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가장 훌륭한 선업은 곧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서로를 살생하여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 나가지만, 진정한 생명은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히 여겨주어야 한다. 다른 생명을 아끼고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살생계는 불교 생명윤리의 근본이 된다.

2) 불교 생명윤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생명윤리의 쟁점들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것[37]이라고 하였는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지금까지 서양의 철학과 종교의 시각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유전자 복제, 인공유산, 뇌사와 장기이식, 태아실험 그리고 안락사와 같은 생명과 연관된 의료윤리학적 쟁점 등에 대해서도 불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불살생계를 제일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37) 미미와 키몬 지음/하남열 옮김, 《불교와 생명윤리학》 (서울 : 불교시대사, 2000. 1), 12쪽.

38) 불교측에 있어서 생태계 문제와 생명공학에 대한 논의는 한국불교 환경교육원의 법륜 스님과 《불교평론》 4호, 2000년 가을호에서 특집으로 다룬 '생명공학과 불교'에서 5편의 논문이 있고,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논문 5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정승석, 《인간복제의 불교적 의미》, 계간 《고학사상》 제22호 (범양출판사, 1997. 1 가을), 정승석,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반성》, 《동서철학연구》 제30호(대전 : 한국동서철학회, 2003년 12월) 등이 있다.

불교윤리의 근본적 취지와도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38] 여기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간 유전자 조작에 한정하여 대략적인 것만 서술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교의 생명관은 업설, 연기설, 윤회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불멸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업에 의해 생사윤회하며, 상호연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아뢰야식 즉 장식藏識을 일상의 경험이 남기는 잠재의식의 창고에 비유하는데, 여기에 간직되어 있는 경험이 곧 업력業力이며 습기習氣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에서 다양한 양태를 결정하는 원인 · 정보 · 자료이며,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전자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유전자는 기나긴 진화의 산물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의 인과의 필연성(유전자)은 외적인 원인과 결과이지만, 불교에서의 필연성(업)은 내적인 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유전자와 업을 동일시하는 것은 지극히 비불교적인 생각이다. 업론이 과학적인 결정론과 다른 점은, 인과관계의 필연성은 생리적 ·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유전자 자체는 기계적 인과론에 따를지 몰라도 그 유전자를 품고 사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유전자나 환경과 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이다.[39]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이제 물질과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했다.[40]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여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이기적 인간중심주의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41] 불교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饒益衆生)을 선으로 가르친다. 인간에게만 이로운 것이 선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연과 다른 생명에 대하여 수많은 악업을 지어왔다. 그 악업의 과보가 현재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인간성 상실과 같은 위기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공학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다른 생명들은 둘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진리 아래 사용되어야 한다[42]"는 주장을 하고 있다. ◎

〈 다음호에 계속 〉

39) 윤용택,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공학〉(http://sukrim.or.kr/pds/31/yoon.html), 12쪽.

40) 최재상, 〈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 《불교평론》 4호, (서울,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34~35쪽 참조.
생명체 복제기술은 생식세포의 복제뿐만 아니라 체세포로 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21세기 인류에게 각종 의약품의 생산, 질병의 진단 · 예방 · 치료, 식량문제의 해결, 인간 수명의 연장 등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종교적 · 윤리적 · 사회적 · 철학적 측면에서 많은 부정적 측면을 노출함으로써 인류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41) 이중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50쪽 참조. 윤영해, 〈불교의 수정이론 : 불교적 생명관의 현대적 이해〉, 《사회사상》 92(1996.11), 82~83쪽 참조.

42) 이중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48쪽 참조.

제9회 유엔 웨삭의 날(UN DAY of VESAK) 참관기

원묘/ 운문승가대학 강사

초파일을 지내고 일진 주지스님과 함께 태국에서 열리는 '제9차 유엔 웨삭데이'에 참석하고 왔다. 남방불교에서는 음력 4월15일을 '웨삭, 혹은 베삭(Vesak)'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붓다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탄생 · 성도 · 열반'이라는 세 가지 사건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으며, 올해 2600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런 점에서 남방불교는 북방불교의 전통하고는 다르다.

이 행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태국 아유타이에 있는 마하출라롱콘 (MCU) 대학교에서 주로 열렸으며, 세계 85개국에서 1,576명의 외국대표와 태국에서 3,500명 등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으며, 한국에서도 80명 정도 참석했다.

개회식은 5월 31일에 있었다. 먼저 태국의 부승왕인 프라 마하라짬카라참 스님과 각 나라에서 오신 큰스님들이 등단하시고 이어서 삼귀의를 봉행했다. 그리고 마하출라롱콘대학 총장이며 이번 대회장인 담마꼬사잔 스님의 환영사, 각국의 불교 인사들과의 상견례, 선물교환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왕실을 대표하여 태국의 출라본 공주가 스리랑카에서 온 대통령과 정부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등장하였다. 공식적인 사진 이외 개인은 절대 사진촬영을 금지하며, 출가자 승단멤버들만 앉아 있으라는 안내를 했다. 공주가 복도를 지날 때 사람들은 모두 기립했으며, 분위기는 조용하고도 숙연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꿇어앉기도 했다. 등단을 마친 공주는 불상 앞에 촛불을 켜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단 위에 앉아있는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나아가 한 분, 한 분께 핑크빛으로 된 불상을 허리를 굽혀 공손히 올렸다. 어떤 스님들은 답례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았다.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치러지는 의식들을 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했다. 첫째, 이 나라 왕실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지만 자신들은 또 승단을 지극히 존경하는 모범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구나. 둘째, 동진시대 여산 혜원 스님이 주장하신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은 남방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실행되고 있구나. 셋째, 어떻게 하여 태국승단은 국민과 왕실로부터 이런 존경을 받는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한편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종단 실추사건을 생각할 때 속이 허해지고 쓰렸다.

오후에는 이 대회의 주제인 '붓다의 깨침과 인간의 웰빙'에 대한 기조연설을 영국에서 온 프라 바하바나파테흐 스님이 했다. 그 뒤로 여러 발표자가 논제를 발표했으며, 저녁에는 13개국에서 온 각국의 문화공연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대체적으로 태국 춤의 연장으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전통 춤이 소개되어 좀 지루하던 찰나에 한국의 영산재가 소개되었다. 나비춤, 바라, 호적 등으로 어우러진 영산재는 아주 다이내믹하고 화려하여 장내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청중 속에서 "앵콜", "앵콜"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 발표자는 초청하지 않았는지 주제 발표자는 거의 남성이고, 대만 · 월남 · 중국에서 왔다는 비구니 몇 명이 보였으며, 정작 태국의 하얀 옷을 입는 매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비구니로서는 유일하게 일진 주지스님이 명성 회주스님과 운문사 대중을 대신해서 축사를 했다. 스님은 축사에서 이와 같은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마하출라롱콘대학의 노고와 또 후원자로서의 왕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대는 사이버세대라고 하나 인간사회는 소통보다는 다른 종류의 장벽과 괴리가 만연하며, 자연환경 오염은 갈수록 심해져서 인간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모임에서 논의된 결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정신적 · 기술적 해답을 제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스낵코너에 가면 참가자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불자들이란 공통점 때문인지 서로 친근하게 다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고, 많은 사진들을 찍었다. 우리 뒤에 앉았던 덴마크에서 왔다는 인상 좋은 두 사람, 웃음이 떠나지 않던 아프리카에서 온 우간다 스님, 방글라데시의 애기스님들(주지스님 표현), 버스 안에서 만났던, 운문사에 자원 봉사하러 오겠다고 약속한 말레이시아의 신심 깊은 보살님들 등등. 얼굴도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냥 편안하고 따스했다.

방콕은 작년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과 경제적 타격이 컸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남방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고 조직적으로 치러내는 태국승단과 왕실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이다. 밤늦은 탑승을 위해서 공항에 왔더니 환송을 위해 그때까지도 기다리던 노란 가사를 수한 젊은 스님들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준다. Thank you so much!!

내 상좌에게 보내는 글

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노스님 영전에도 향을 사르고
많은 생각과 인생의 허무함을 재삼 뼈저리게 느끼면서 발원을 하였다.
너가 불가에 출가하여 내 상좌가 되어 인연 맺은 지도 어언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스승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어도
너는 어렵게 서울에서 공부하여 훌륭히 성장하여 포교 일선에서 큰일을 했다.

저마다 중이 되어도 인연과 업이 달라서 참선하는 상좌도 있고
너처럼 도심 중에 뛰어 들어 보살행을 하는 상좌도 있듯이
나는 모두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 일을 논하고 출가의 보람은 참선하여 마음을 밝히는 일이 아니겠나.
너를 지척에 두고 연신 비보를 들으면서도 가서 보지도 못하고…….
내가 간들 무슨 힘이 되겠느냐.

그 어떠한 진리의 말씀도 전해주지 못해 스승으로서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다.
어찌 이 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경전을 섭렵하고 두루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정의 많은 애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행무상을 느끼고 신심 있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분명 지는 해는 내일 다시 떠오르고 봄이 되면 나무에 움이 트고 새싹이 피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한번 가면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만고의 진리이고 부처님의 법이다.
비록 네가 선방에서 참선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 나름대로 화두를 챙겼으리라 믿는다.
비록 천년의 어둠이 지속되었어도 촛불을 켜면 일시에 환해지듯이
너가 비록 병고에 있어도 화두를 든다면
한 생각 하는 찰나에 만겁의 업과 애착이 녹을 것이다.

너가 어렵게 각고 끝에 이루어 놓은 불사가 어찌
금생의 영화만이라고 보고 또한 그것을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영겁을 두고 성불이 목적이기에 지금의 삶도 하나의 수행의 길이라 여겨
육체에는 생멸이 있을 뿐 마음에는 간단間斷이 있겠느냐.

그러하듯이 어렵지만 병석에서 마음을 굳게 다져 부처님과 보살님께 참회하고 발원하여
아난존자가 계족 정진하여 일주일 만에 九겁을 뛰어넘어 성불하여
가섭존자의 법을 이었듯이 너도 그렇게 마지막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엄숙하게 받아들여 본마음을 챙기어라.
언젠가 필경에 한번 태어나면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차라리 공중에 나는 새는 발자취가 있을지언정 중의 뒷모습은 자취가 없어야
그것이 출가한 사람의 맑고 떳떳한 모습이다.

때를 알아 가는 이의 모습처럼 애써 이루어놓은 불사를 네 손에서 정리할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정신과 신체가 강건할 때 바른 판단으로 결정하여라.
이다음 인연제시에 강건한 모습으로 출격장부가 되어서
네가 금생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모두 이루도록 원력을 세워라.
어찌 이것이 너에게만 닥치는 일이고 너만 겪는 일이겠느냐.
다 생명이 있는 자가 한번 치러야 할 일대사이지만
왜 너가 내 앞에 서두르는 것이 애닯고 원망스럽구나.

이 편지를 받고 애착이라 여기는 부수의 것들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참 그래, 좀더 나에게 짧은 삶이 주어졌구나.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
수많은 제불조사가 수천 겁을 두고 각고 끝에 불도를 이루지 않았겠는가.' 라고
장부의 마음을 가져서 부디 노력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정력이 있을 때 화두를 놓치지 말거라.
간곡히 스승으로서 부탁하고 애원한다.

그리고 혹여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라.
곧장 올라 갈게.
그리고 서울에 사형들이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부탁하여라.
참으로 어렵고 어렵게 생각 끝에 이 글을 썼지만 은사 된 도리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깊이 새겨서 마음 다지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은사는 너의 수행을 존중하고 이 글을 썼다.

"모든 제불조사가 증명하고 삼보전에 원력 세워 신 · 구 · 의 삼업이 청정하여
인연 회우시에 출격장부가 되어 불도를 이루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예경하며 펜을 놓는다.

은사 합장

*이 글은 15년 전 인으로 돌을 마감 짓는 상좌였던 덕 스님에게 보낸 석남사 신월정 법희노스님의 편지글입니다.

외도가 된 종정과 초기불교도의 착각

방경일/ 불교저술가

문제의 발단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견해의 분출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이제 일상다반사가 됐다. 불교라고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28일 조계종 제13대 종정 추대식이 조계사에서 열렸는데 며칠 뒤에 신임 종정 스님의 법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났다. 작년부터 한 무리의 재가자들에 의해 선지식(스승)으로 추대되어 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문을 하고 있는 L모 재가 법사님은 지난 4월 1일에 행해진 법회에서 신임 종정 스님이 '참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내용은 그 법회의 동정을 상세하게 전하는 M모 인터넷 불교신문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됐는데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님은 '참 나'를 찾으라는 인도 바라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무아를 선비했다.
둘째, 무아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셋째, '참 나'는 나라고 하는 권가가 있는 것이니 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넷째, '참 나'를 찾으라는 것은 불교의 근본교설인 연기, 중도, 공에도 어긋난 것이다.
다섯째, '참 나'는 외도의 주장이므로 '참 나'를 찾으라고 하는 종정은 사실상 불교인의 외도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불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계종의 최고어른을 외도로 취급한다는 것은 시쳇말로 막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시 도가 지나쳤다고 여겨서인지 J모 스님이 L모 법사님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자 M모 인터넷 불교신문이 이를 옮겨 실었고, L모 법사님은 J모 스님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같은 신문에 실었다.

필자가 이 일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다. 아함경이나 니까야 등 한글로 번역된 초기불경을 읽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 무아에 입각해 '참 나'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선불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초기불교를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유일한 부처님의 직설直說(직접 하신 말씀)로 믿는 사람들은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보고 그 수행자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외도로 취급해버린다. 그들의 주장처

럼 선불교는 불교가 아닌가? 조계종의 불자들은 불교도가 아니라 외도인가?

무아의 의미

초기불경에는 무아와 관련된 심각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부처님에게서 고, 열반, 무아 등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자살했다. 이들이 자살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 도달하는 것이 열반인데,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붓다가 말씀하신 무아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라면 누가 자살한다고 해도 자살이라는 행위만 있지 자살자는 없다. 이래저래 자살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된다.

하지만 자살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부처님은 그런다고 열반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살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우리의 몸이 있고 없음은 열반과 상관없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열반은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요소가 아닌가. 여기서 무아라는 가르침의 의미를 살펴보자.

한자 무아無我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안아트만(Anatman)으로 언어적인 의미는 '아트만은 없다'이다. 초기불전의 여러 경전들을 참고하면 이 아트만은 '오온으로 구성된 것'이다.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의 다섯 가지가 모여서 된 것이 나이므로 이 다섯 가지가 해체된다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오온의 해체가 실감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사고思考실험을 하면 된다.

가정1 : 모든 인간의 수명은 백년이다.
가정2 : 우주는 백년을 1초로 시간의 단위를 재구성한다.
가정3 : 인간의 태어남은 불빛이 켜짐이고 죽음은 불빛의 꺼짐이다.

이제 가정2의 시간으로 백년을 사는 관찰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관찰하면 그곳에서 1초단위로 수많은 불빛이 명멸明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장구한 세월 속에서 본다면 인생이란 반짝이는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설령 오온이 결합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섯 가지 요소의 속성이 모두 무상無常이므로 '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없고 단지 '불변하는 나라고 하는 개념(정체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위빠사나라는 통찰 수행을 통해 오온의 무상함을 체험하면 나라는 개념(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나라는 개념(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스님들은 장로게와 장로니게에 자주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불렀다.

> 아생이진我生已盡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했고
> 범행이립梵行已立 오염 없는 행위가 이미 확립되었다.
> 소작이판所作已辦(이룰 바)할 바를 이미 다 했으니
> 불수후유不受後有(생사를 받는다는) 이어지는 존재는
> 다시 없느니라.

따라서 초기불교의 무아에서 '아'란 표면적으로는 오온이 결합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나라고 여기는 개념(정체성)인 것이다. 결국 표면적인 무아를 이해한 사람들은 온갖 고통의 원인인 오온을 제거하고 열반을 이루기 위해 자살을 택했지만, 내면적인 무아를 이해한 사람들은 오온으로 구성된 몸과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진아眞我의 의미

'참 나'는 한자 진아眞我의 번역이다. 천태天台대사(538~597)는 《사교의四敎義》에서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님이 진아의 의미임을 알아라(知 非我非無我 是眞我義)'고 했다. 대사의 주장을 변증적으로 설명하면 아我라는 주장(정)에 대해 무아라는 반대 주장(반)이 나타났는데 진아라는 종합적인 주장(합)으로 앞의 두 주장을 아우른 것이다. 그렇다고 진아가 새로운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천태 대사가 앞의 주장에 이어 '무아법 가운데 진아가 있다(無我法中 有眞我)'고 했기 때문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진아 역시 천태 대사가 제시한 진아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주인공이나

본래면목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사들이 말하는 진아가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무아가 아니라 유아인데 그것은 진아'라는 식의 주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진아를 말한 선사는 없다. 선사들이 진아를 찾으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된 자아나 그로 인해 생긴 '나'라는 개념(정체성)의 존재성에 대한 의심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다.

만약 현실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가르침인 유교가 장악한 고대 중국 사회에서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무아를 말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거나 부처님 당시처럼 자살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불교의 핵심교설인 무아설의 이런 약점은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걸쳐서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함경이 모두 한문으로 번역되었지만 동북아시아 불자들에게서 외면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아가 어떤 존재라고 우긴다면 일단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그 존재의 속성이 무, 즉 '없음'이라면 이는 무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열반경》이나 〈사교의〉에서 말하는 무아법 가운데 진아가 있다는 것도 이런 이치다. 천오백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중심 불교로 지속해온 선종 역시 기본적으로 무無사상의 전통위에 서 있다. 《육조단경》의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나 《마조록》의 비심비불非心非佛, 《임제록》의 살불살조殺佛殺祖, 간화선에서 무無자 화두를 최고로 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종합하면 현재 한국의 선사들이 말하는 '참 나', 즉 진아를 찾으라는 가르침도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진아, 즉 '참 나'라는 말이 선종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완전히 무시하고 글자가 가지는 단순한 뜻만 가지고 우기는 것이다.

'참 나'와 연기, 중도, 공의 관계

'연하여 (같이) 일어남'으로 풀이되는 연기緣起는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고 독립된 것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진아가 독립되고 고정불변한 실체라면 연기에 어긋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종에서 말하는 진아(참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중도中道는 '양 극단을 떠남'이다. 천태 대사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진아 역시 아와 무아의 양 극단을 떠날 것을 요구하므로 중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의 단어적인 의미는 '비어 있음'이지만 맥락적인 의미는 '실체 없음'이다. 진아의 속성이 무(없음)임을 감안하면 진아는 공과 잘 어울린다.

따라서 '참 나'를 찾으라는 가르침이 초기불교의 근본교설인 연기, 중도, 공에 어긋난다는 것도 L모 법사님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L모 법사님이 무아설을 기준으로 '참 나'를 찾으라는 신임종정을 외도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스스로 공부가 깊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동북아시아의 불교역사에서 진아를 이야기한 불자들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모조리 외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모 법사님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은 또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종정 외도 판정의 사회적 배경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땅의 초기불교도들이 가지는 공통된 생각은 '초기불교만이 불교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승불교나 선불교는 당연히 불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외도의 주장에 불과하다. 초기불교도의 이런 인식은 대승불교가 나타난 이천여 년 전부터 비롯된 것으로 당시 그들은 대승불교도들을 불법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외도로 봤다.

현재 한국의 초기불교도들은 전통과 신념에 입각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공연히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를 비난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해 초기불교도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움직임을 부추겼을 것이다. 필자는 선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종정이 법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가 법사

에 의해 외도로 매도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초기불교도들의 착각

초기불교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초기불교의 경전, 특히 팔리어로 된 니까야의 내용이 100% 부처님의 직설直說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는 니까야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① 구전되어 온 것임
② [illegible] 문서화된 것임 [illegible]
③ [illegible] 약 7세기(1,300년 전) [illegible] 사본임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는 니까야의 내용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전달자나 기록자에 의한 수정이나 첨삭이 가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구조화된 교설들을 담고 있는 부분은 부파불교 시대의 산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깊이 공부한 전문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기불교도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니까야의 내용이 100%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맹신하는데 이는 대승불교나 선불교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초기불교도들의 또 다른 착각은 초기불교가 쉽다는 것이다. 번역자들의 노고 덕분에 한글로 읽을 수 있어서 쉽게 느껴지지만 불교 술어는 대부분이 고도로 함축된 의미를 가진 개념어다. 게다가 삼법인, 사성제, 사선정, 오념, 오력, 육근, 육경, 육법, 칠각지, 팔정도, 십이연기, 십이처, 십팔계 등 초기불교의 중심 교설들은 수행을 통해 그것을 체화體化한 사람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전에 용어적인 의미라도 제대로 알려면 팔리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밖에 힌두교가 불교의 무아를 벤치마킹한 진아를 바라문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 초기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초기불교의 교리들은 오류나 모순이 없다는 것, 대승과 소승은 교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 등도 초기불교도가 흔히 하는 착각이다.

관점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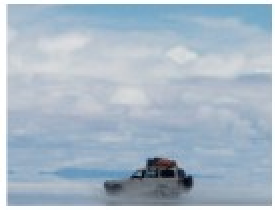
초기불교의 핵심교설인 십이연기는 유전문과 환멸문을 제시한다. 따라서 초기불교도들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 무명無明을 없애려고 한다. 그런데 선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십이연기는 멀쩡한 사람에게 씌우는 굴레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명을 없애는 방법도 간단한데 그냥 무를 떼버리면 된다. 원래 명明인데 스스로를 세뇌시켜 무명이라는 족쇄를 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승불교도들은 초기불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파불교가 내세우는 현란한 교설들이 배우는 사람의 정신을 속박함으로써 부처님의 본래 의도를 저버렸다고 보고 공과 식에 근거한 새로운 경전들을 만들었다. 그런 대승불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실수를 했다고 본 선불교도들은 모든 교설을 버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보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고도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불교에 비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누구든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선불교야말로 가장 쉽다. 이런 선불교는 다른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의 초기불교도들도 착각에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선불교에 대한 선동에 가까운 비난을 중지해야 한다.

원을 표현하라면 일반인들은 동그라미를 그리지만 수학자들은 $x^2+y^2=r^2$ 이라는 방정식을 쓴다. 입체인 원통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평면인 원이나 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우긴다면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참 나'를 사용한다고 외도라면 부처님 당시의 사문사상계(외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인 업이나 해탈을 말하는 초기불교도들 역시 외도가 아닌가!

방경일 1983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현재 불교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초기불교 VS 선불교』 등이 있다.



우유니 소금사막
[illegible]

볼리비아 여행기

덕헌 / 대교과

티티카카호수
[illegible]

볼리비아……, 남미 여행 중 전혀 비중이 없던 나라. 나스카, 마추피추의 나라 페루와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중간에 위치한 그저 그런 나라, 나에게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왜 유독 남미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너무나 유명한 유적지가 많은 페루, 리마 박물관부터는 그냥 빠져버렸다. 미술 서적으로만 봤던 것들이 눈앞에 실재했기에 그 밀려오는 감동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남미행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자찬을 하면서 시작한 여행, 하지만 메마른 감동의 나스카, 경비행기를 타고도 보았지만 그저 나에게는 땅 위에 그려진 단순한 도안일 뿐이었다. 그리고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했던 마추피추, 많은 이유로 유명한 유적지이고 나름의 감동이 있었지만 기대치가 컸던 것일까……. 그리고 페루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의 나라여서 그런지 인간미라던가 순수한 모습은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곳에서 나는 그저 이방인 축에도 못 끼고 그저 한낱 관광객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쳐지나가는 여행보다는 그곳에서 살면서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여행은 그들의 숨쉬고 사는 진실한 모습을 만나고 느끼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 곳에서 적어도 1~2년간 머무르면서 살다 보면 그들은 이방인의 존재를 잊은 듯, 그들의 참모습을 하나씩 양파껍질을 벗기듯 보여준다. 아니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호기심 가득한 내 생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을 가라앉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순리대로 보아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다음 행선지는 별 기대감 없이 내려간 인디오의 나라이자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해발 3,000미터 이상에 있어 남미의 지붕으로 불리기도 하는 잉카제국의 일부로 안데스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기도 했으나, 1535

태양의 섬
[illegible]

년 스페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신이 내려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부존자원마저도 19세기 골드러시 동안 유럽인들에게 약탈당해 두 번 죽임을 당한 곳, 볼리비아였다.

볼리비아의 길은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볼리비아에서 칠레 사이를 가로지르며 있는 고원 속 아름다운 호수, 여러 색채를 띤 라군들과 플라밍고, 야마떼를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수도 라파즈에서 팜파스 투어로 유명한 루레나바케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이다. 무려 18시간을 불편한 의자에 볼리비아 사람들과 살을 부대껴가며 천길만길 낭떠러지 길을 밤새도록 달린다. 중간 중간 수많은 십자가와 애도의 꽃다발을 보며 죽음의 길에 뿌려진 흔적들을 뒤로 하고 팜파스가 있는 루레나바케로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길은 4,000미터 고지에 펼쳐진 웅장한 티티카카(Titicaca) 호수 위에 떠 있는 태양의 섬, 이슬라 델 솔(Isla del sol) 위를 걷는 길이다.

티티카카호수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걸쳐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해발 3810m 높이의 고지대에 있는 호수로 매우 크기 때문에 물 한가운데 떠 있자면 이곳이 호수인지, 바다인지 분간할 길이 없다. 잉카문명의 신화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며 안데스산맥의 얼음과 눈이 녹아내려 이루어졌으며, 그 옛날 잉카의 초대황제 '망코카파크'가 자기 아내 '마마오크료'와 함께 이 호수에 나타나서 태양의 섬에 강림했다는 전설이 있다. 호수는 중앙부근에서 페루와 볼리비아로 국경이 나눠지며 또 증기선이 항해하는 세계 최고지점의 호수로도 유명하다. 부근의 눈 녹은 물이 20개가 넘는 강이 되어 흘러드는데 이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없다. 같은 호수이건만 볼리비아와 페루의 티티카카는 좀 다른 모양새다. 볼리비아 쪽은 물이 깊고 맑아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던 반면, 페루 쪽은 수심이 2~3m밖에 되지 않아 물색이 탁하며 갈대, 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볼리비아 코파카나에 있는 티티카카호수를 가면 태양의 섬에 갈 수 있고 페루에서 보트를 타고 1시간 가량 가면 호수에 사는 소수 민족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떠다니는 우로스섬(Uros Floating Islands)에 갈 수 있다.

먼저 태양의 섬은 잉카 신화에 따르면 해와 달의 고향이라고도 한다. 약 두어 시간 배를 타고 청명한 티티카카호수를 가로지르면 나타난다. 가파른 바위로 된 섬, 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도 이곳에 터를 잡고 계단식 논밭을 가꾸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기억을 독차지해버린 태양의 섬에서 본 티티카카호수……. 아직도 눈에 선한 그 높은 고지에 있는 호수 위로 쏟아지는 석양빛에 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반짝였던 눈부신 수면과 계단식 논을 라마를 끌고 지나가는 마을 아저씨의 뒷모습은 눈부신 햇살을 표현하고 싶었던 인상파의 그림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삶의 잔잔함을 표현한 밀레의 농부가 생각이 나는 풍경이었다.

두 번째, 페루 쪽에서 들어가는 떠다니는 우로스섬. 호수에서 자라는 갈대를 베어다 묶어서 나란히 늘어놓은 것이 지금과 같은 섬이 되었다고 한다. 갈대로 만든 섬이지만 갈대로 만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

다. 섬에는 '우로스족(Uros)'이라는 인디오들이 살고 있으며 그 역사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구전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로스족은 티티카카호수 연안의 민족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며(12~15세기) 떠있는 섬 자체는 150~200년경에 생겨났다고 한다. 구전으로는 마추피추와 같이 전쟁을 피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다. 티티카카호수에는 크고 작은 46개의 갈대섬이 있다. 물에 뜨는 이 풀은 '토토라' 라고 불린다. 이 풀을 이용해 흙에 고정시킨 뒤 겹겹이 쌓아올린 것이 우로스섬이다. 식량으로 먹을 수도 있으며 오래되면 썩기 때문에 1주에 한 번씩 오래된 풀을 제거하고 새로운 풀을 얹어야만 섬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 토토라를 이용해서 배를 직접 만들어 섬끼리 이동하기도 한다. 색색 형형의 치마를 입고 반기는 우로스섬 주민들, 여러 겹의 속치마 때문에 이들의 치마는 굉장히 풍성한데 페루 전통의 화려한 색으로 눈에 잘 띈다.

물 위에 떠다니는 우로스섬에서의 하룻밤은 티티카카호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석양과 밤하늘의 별들은 내게 묻고 있었다. '넌 무엇을 찾아 여기에 왔니?' 아침이 되어 깨어보니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구경하러 온 것인지 그들이 날 구경나온 것인지……. 이내 지루해졌는지 섬 가장자리 지푸라기를 붙잡고서 물장구를 치며 물놀이를 한다. 원주민들의 소박함과 아이들의 천진한 눈빛은 또 다른 소중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유니 소금사막(Sala de Uyuni)을 향해 출발했다. 아마도 볼리비아의 꽃은 우유니 소금사막이 아닐까 싶다. 지프차로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펼쳐지는 소금사막, 소금으로 지어진 호텔, 지각변동으로 소금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호섬,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사람 키만한 선인장들, 비가 살짝 지나가고 나면 소금 위 빗물에 반사된 구름과 하늘 사이에서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 위에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아마 이런 전경을 또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르헨티나로 가기 위해 대략 20시간의 장거리 버스를 타고 척박한 고지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도 볼리비아와는 대조가 된다. 눈가가 촉촉해진다. 조금만 이렇게 내려오면 따뜻한 기후와 풍족한 물과 자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거기에 있는 걸까. 남미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난한 볼리비아의 순수함과 자연에 순응하고 지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은 이후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되었다.

우유니소금사막
비가 살짝 지나가고 나면 소금 위 빗물에 반사된 구름과 하늘 사이에서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 위에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가공이나 물질에 지배받지 않은 서로 다른 색깔의 길들을 간직한 볼리비아에서 난 지금 걷고 있는 길의 초석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 여행을 떠나 길 위에 서면 척량골이 서늘해지며 정신이 번쩍 든다.

"왜곡되고 그릇된 생각은 세속적 삶의 철창이든, 영적인 삶이라는 황금철창이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속박한다. 쇠로 만든 철창은 끊임없이 나고 죽는 연결고리인 반면, 황금철창은 자신이 세운 잣대의 노예가 된다."라고 톨텐 예세 라마는 말한다.

다시 만행을 떠나, 안주하고 물들여진 내 마음을 칼칼하게 일으켜 세우고 싶다.

용맹정진

현사 / 사집과

부처 되는 길

지한 / 대교과

절집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며 문득 부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였다. 그러다가 강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까지 나름의 고민한 시간들을 '부처가 되는 길' 이란 주제로 나눠보고자 한다.

유식과 기신론에서 정의하는 부처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6식을 통한 번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아치, 아만, 아견, 아애' 의 나라고 집착하는 7식의 번뇌가 정화되고 무의식인 8식까지 온전히 정화됐을 때 거울처럼 깨끗해진 무구식, 백정식을 부처의 경지로 본다. 이 경지가 되면 나라고 착각했던 오만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나를 벗어나 진정 자유로워진다. 그럼 아치, 아만, 아견, 아애는 무엇이고 7식으로부터 벗어나 8식을 정화하여 부처가 되려면 강원에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

이 답을 구하기에 앞서 풀어야 할 의문은 구사론에서 배운 소승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왜 소승의 최고 깨달은 지위인 아라한은 부처가 되지 못할까? 이 의문은 유식과 원효의《대승기신론소》를 통해 소승, 대승의 차이를 알면서 풀렸다. 소승아라한이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6식까지만 단속하는 수행인 반면 대승보살은 7식의 나란 집착을 버리고 화두, 참선, 선정삼매를 통해 나라는 집착으로 인해 오염된 8식까지 정화하고 나, 너, 중생차별을 벗어난 우주전체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비로소 정화돼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무구, 백정식이 되었을 때를 부처로 본다. 이런 의문이 풀리자 소승의 한계를 벗어나 강원에서 할 수 있는 대승수행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고 답은 이미 강원생활을 하는 우리들 생활 속에 있음을 알게 됐다.

위빠사나 같은 소승아라한 수행을 통해, 6식을 다스려 번뇌로부터 잠시 벗어나도 뿌리가 없어지지는 않기에 끊임없이 대중과의 관계 속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강원생활은 근본 무의식이 끊임없이 자극 받기에 수행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다. 도반들과 상하반,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며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순간 일어나는 고통,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맞부딪히며 들여다볼 때만이 내 무의식인 8식이 자극받아 진정 내 안의 부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어설프게 내면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내 무의식인 8식이 절로 정화되지 않는다. 6식과 달리 7, 8식의 번뇌는 의식 아주 깊숙한 곳에 감춰져있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어진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떤 감정들로 어떻게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감정은 언제 어디로부터 왔는지 뿌리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사라진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집착인 7식 때문인데 생활 속에서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7식을 고집함으로 인해 생긴 괴로움임을 알아차려 행동하면 집착으로 계속되는 7식은 본래 실체 없는 허망한 것이라 알아차린즉 사라진다. 이처럼 내 안에 흐르는 감정들을 붙잡지 않고 알아차림을 통해 자연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강원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무의식인 8식과 만나는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이렇게 조금씩 나의 무의식을 알아차려가며 정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상대방의 번뇌로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땐 같이 흔들리지 말고 조금 떨어져 흔들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으로 인해 내 안에 번뇌가 일어나기 전 미리 상대방의 고통과 그 원인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좋겠지만 이미 내 마음이 번뇌에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 또한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상대방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이란 감정 또한 실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사라진다. 나의 고통뿐만이 아닌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행력이 필요하다.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 대중에 모여 수행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고통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다 흔들리지 않는 힘이 굳어지면 보이기 위한, 아만을 채우기 위한 노력 아닌 결과로 자연스런 보살행이 나오고 보살행을 통해 8식이 정화되어 보리심은 대승의 깨달음으로 변화해 부처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대승에서 부처되는 길이다.

끊임없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인내와 정진의 힘, 때론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객관적 판단력과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있는 용기, 지혜, 선정의 힘을 길러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되 거문고 줄 튕기듯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스스로 조절하며 하루하루 힘을 쌓을 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탁하고 무의식이 건드려져 참된 내가 드러나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고 행복해진 만큼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동업의 인연들이 함께 자유의 길을 가게 되는것이다.

물론 강원 졸업 후 누굴 만나고 어느 때,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 임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열쇠는 힘들어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때 괴로워 영원히 피할지, 돌아갈지, 그 자리가 부처 된 자리임을 믿고 바로 들어갈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다. 행복의 문을 열게 될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고 열쇠는 각자 마음 안에 있다.

처한 자리가 곧 공부처, 부처 되는 자리임을 믿고 그런 신근의 힘과 선정, 지혜의 힘을 길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의견만 맞다 주장하는 아견, 나만 잘나 최고인 아만, 나만 너무나 소중해 다른 사람 입장 생각 않는 아애, 무지한 아치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알아차리면 멀리서 부처와 선지식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7식에 의해 나를 고집하는 아집을 비려 진정 함이 없는 보살행을 하며 끊임없이 불법을 배워 익혀나가면 번뇌로 오염된 8식이 맑아져 나와 남이 진정 하나인 우주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법공도리를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부처 되는 길, 모두 행복해지는 길은 나를 떠난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볼 때 중생이며 동시에 부처인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가 부처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듯 이젠 우리가 마음 속 길을 떠날 차례다.

신심과 깨어있음을 수행의 등불로 삼아 일상의 평범함 속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자.

아주 가난한 인연

장철문/ 시인, 순천대 교수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절에 드나드는 친구에게 나도 함께 가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왜였을까? 그 낱낱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폭음暴飮과 울분으로 당신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는 한 시간 거리도 채 되지 않는 통학거리를 무시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다. 주정과 손찌검에 속수무책이면서도 자식 핑계로 꾸역꾸역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서니 어디 기댈 언덕 하나 없었다. 혼자였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 친구는 흔쾌히 산 너머 절에 나를 데려가 주었는데, 그날 마침 큰절에서 젊은 스님이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법문을 하러 오셨다. 열대여섯의 까까머리와 갈래머리들 앞에서 어떤 법문을 해야 하나 막연했던지 스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때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온 말이란 "첫사랑 얘기!" 였다.

스님에게 첫사랑이라니! 갓 서른의 스님은 눈에 띄게 당황스러워했고, 그럴수록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얼굴을 붉히던 스님은 마침 알맞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더니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빚쟁이는 만나서 괴롭다.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또 그 뻔한 소리냐며 아이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 그 야유 속에서 나는 불현듯 진공청소기에라도 빨려들어간 듯 먹먹했다. 그때 나는 막연히 '사랑' 만이 모든 괴로움의 출구라는 출처불명의 경구를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성과의 사랑에 대한 '호기심' 과 '기대' 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괴로움의 출처라니. 그리고 빚쟁이! 절묘한 번역이었다. 만약 '미워하는 사람' 이라고 옮겼다면, 나 역시 뻔한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빚쟁이' 라는 말 속에는 가난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산스러운 삶이 선명하게 판 박여 있었다. 아버지의 삶은 늘 빚쟁이에게 쫓기듯 했다. 아들자식 다섯에게 쫓기고, 무너져버린 젊은 날의 포부의 여진餘震에 쫓기고 있었다. 등록금과 책값과 밥값과 방값뿐만이 아니었다. 밑 빠진 독에 붓는 물과 같은 관심과 보고 배울 본을 보여야 한다는 한없는 부담, 자신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자괴, 그런 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취하게 했을 것

이다. 그런데 그 반대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던, 내가 신기루처럼 희구하던 그 '사랑'마저도 괴로움의 출처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애초에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부인할 근거를 댈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불만스러운 삶의 비밀을 풀어보고 싶다는 의욕이 일어날 때마다 불교 경전을 찾곤 했다. 《반야심경》을 외웠고, 두 쪽밖에 되지 않는 경전을 묵직한 한 권의 책으로 해설하면서도 지면이 모자라다는 듯 깨알같이 글씨를 박아넣은 《금강경》을 읽었다. 갈수록 오리무중이었다. 내가 처음 만났던 말, 쑥대머리 춘향이에게 칼을 씌우듯 내 온 머리와 가슴을 덮쳐 내리던 말을 뚫고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비집고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두 절벽의 틈, 끝없이 조여오는 애증愛憎의 틈바구니를 빠져나가는 길은 트이지 않았다. 아니, 잡힐 듯 먼 허공으로 달아나곤 했다.

언젠가, 대학시절이었다. 우연히 읽은 《법구경》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구절을 다시 맞닥뜨렸다.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이랬다.

>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 애써 만들지 말라
>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 〈 법구경 No. 211 〉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에게 얽매임이 없을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또한 '자유'일 터였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갖지 않는다면, 두 분에 대한 애증이 없다면 분명 '편안'해질 것이었다. 젊은 나에게 이성에 대한, 또 사회적 · 인간적 삶에 대한 희구가 없다면 '고민'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초목이든 미물이든 암수와 남녀가 있고, 사랑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정을 나누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내려놓을 수 없는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삶'의 전제조건이다. 그것 없이 '삶'은 없다. 그러나 '사랑'과 '미움'이 근심의 뿌리이며,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이 고통인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 의문 속에서 나는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사방이 텅 빈 허공에 갇힌 기분이었다. 허공에 갇히다니! 나는 그 어불성설의 막막함 속에서 맥없이 나이 들어갔다. 스물에 스물여섯의 둘째 형을, 서른에 서른아홉의 큰형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내가 두 형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두 형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원통하고 괴로웠으며, 그 고통을 견디는 부모님을 뵙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삶과 죽음이라는 두 벼랑의 칼날 위에 서서 한 발 재겨디딜 수가 없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길을 가다가 아랫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곤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고 싶었다. 격렬한 운동도 할 수가 없어서 '기공氣功'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위빠싸나'라는 말을 들었다. 마음과 말과 행위를 어느 순간, 어느 동작에서도 "깨어 있음으로써 알아차리라"고 했다. "그저 바라만 보라"고 했다. "괴로운 '나'도, 괴로워할 '나'도 없다"고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먼 미얀마까지 갔었다. 그 뒤로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역시 절벽 틈바구니에 끼여 있거나 벼랑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사랑도 미움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고통이다. 그 끝없는 유전 속에는 착각이 아닌 이상 '나'라고는 없다. 불만족스러운 '나'도 불만족스러워하는 '나'도 없다. 그렇다. 예컨대,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습관일 뿐이다. 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국 담배를 부르는 몸의 유혹에 지고 만다.

욕망과 같은 불길은 없으며
증오와 같은 구속은 없으며
무지와 같은 그물은 없으며
갈애와 같은 홍수는 없느니
〈법구경 No. 251〉

가끔 출발선에서 서성이며 달리지 않는 육상선수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물에 젖는 것이 두려워 풀에 뛰어들지 않는 수영선수. 한때는 얼굴 밝은 스님들만 보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슬프고, 부끄럽고, 한없이 부럽고, 절망스럽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가사를 입고 벗고가 문제가 아니다. 아내가, 자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한 줄 알면서도, 피워 무는 그 순간부터 회한에 사로잡히면서도 몸의 부름에 또 응하고 마는, 켜켜이 접힌 마음의 그늘에 접혀들어가고 마는 그것이 문제다.

집요하게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아교처럼 흘러내리는 두 절벽 틈에 끼여 마치 기필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 너머 '어딘가'가 있다는 듯 버둥거린다. 한때는 헐거워진 틈으로 앞쪽에 뚫린 하늘을 보기도 했다. 절벽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져 한없는 가벼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기억일 뿐. 아득한 두 벼랑을 거느린 칼날 위에 서서, 한순간 그 백일몽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 칼날도, 칼날 위에 선 나도 텅 비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일 뿐. 끝없이 절벽의 틈바구니로 끼여 들거나, 두 벼랑을 거느린 칼날 위에 선 자신을 발견한다. 여전히 주머니에 담배를 찔러넣고 다니는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진리의 꽃다발 법구경》(아이세움 2006)의 머리말을 수정한 것입니다.

장철문 시인,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1994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마른 풀잎의 노래' 외 6편을 발표하면서 시문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바람의 서쪽》, 《산벚나무의 저녁》, 《무릎 위의 자작나무》가 있다.

꽃보다 고운 우리는 천진불

| 제3회 운문사 여름문화학교 |

현대불교음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 현대기독교대중음악(CCM)과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Perspective of Buddhist music

신하/ 대교과

목 차

Ⅰ. 서 론
Ⅱ. 현대불교음악과 CCM의 정의
Ⅲ. 현대불교음악과 CCM의 현황비교
Ⅳ. 현대불교음악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발전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2. 불교계 전반적인 관심의 부족

찬불가의 경우 사찰에서 법회의 기본의식에서 쓰이는 몇몇 곡만이 주로 불리어 많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불교신자의 경우에도 그나마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방이나 시골 사찰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이는 의식 찬불가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의 법회만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 찬불가는 기독교 찬송가풍의 음악이 대부분이라 불교 고유의 색깔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기존의 불교계는 40, 5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청년포교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다. 요즘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서양 음악을 배워온 세대이다. 또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하고 스마트폰으로 늘 인터넷을 하는 세대이다. 그리고 그 정보 중에 음악에 관한 것이 아주 높다.[6] 즉 그들이 불교음악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이나 도서 등 불교음악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불교계에서는 최근에서야 불교 인터넷음악 방송국이 생겼다. 한국불교태고종 불심사에서 만든 것으로 불교음악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조계종단에서 불교음악의 행정적인 계통을 확립하여 산발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불교인들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어 인터넷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임으로써 불교음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3. 전문 인력 양성의 미흡

불교음악이 발전하려면 훌륭한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음악만이 가진 특징을 잘 표현하고 무엇보다 다른 음악과는 다른 불교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4년제 대학 중에서 불

교음악과를 가진 대학교는 불교음악협회가 명신대학교와 협력으로 개설한 불교음악학과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과 정도가 전부이다. 그 외 불교대학이나 문화강좌로 강의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불교음악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고 보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음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것이다. CCM의 경우는 대학교에서 학과로 채택되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CCM학과, 서울예술종합대학교 CCM학부, 한국콘서바토리 CCM학부, 한국기독교음악대학, 백석예술대학교 CCM실용음악과 등 여러 곳이 있다.

4. 불교음악 방송의 부족

현재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불교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불교방송을 대표하는 것은 불교방송(BBS)과 불교TV(BTN), 불교라디오가 대표적이다. 스카이라이프 채널에 불교음악방송이 생겼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채널의 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불교음악만을 주제로 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극소수이다. 라디오의 경우 편성표를 보면 불교음악보다는 클래식이나 팝, 가요 등이 주를 이루고 불교음악은 해외의 명상음악 등이 더해져 있다. 국내에 나와 있는 불교음악의 소개라든지 신규음반 소개, 불교음악 가수의 출연 등은 거의 없다. 이는 진행하는 곳이 불교방송국이라는 것과 진행하는 이가 불교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타 공중파 방송과는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상황은 불교음악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 불교계 방송에서마저 불교음악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면 불교음악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불교방송을 거점으로 하여 공중파 방송을 시도해보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5. 불교음반제작의 부족

인터넷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국의 입장도 있다. 바로 방송할 만한 음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워낙 음반 제작이 적다보니 같은 음악을 계속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부르는 사람이나 형식만 다르지 같은 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편성곡을 짤 때 너무도 힘들다는 것이다. 또 청취자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불교음악의 발전만을 위해 소비자의 기호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볼 일이다. CCM의 경우 음반제작에 관한 논문이 있을 정도로 음반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가한다. 전체적인 음반 상황이 어려운 것은 CCM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반제작을 포기하진 않는다. 제작비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과 기획사의 홍보 방안의 다양한 공략, 변화하는 미디어세대를 위한 새로운 홍보 방안을 수립하면서 변화를 꾀하면서 살아남는다. 어떠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기까지는 수없는 시장조사와 연구, 인적, 물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음악계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를 연구하는 자세로 신중히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전통불교음악의 보존

대중 지향적인 찬불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전통을 지켜나가는 후학

6) 한국콘텐츠학회지, 44(1) : 101-115, 2010, [DOI:10.4275/KSUS.2010.44.1.101], p.106, '국내포털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현태 분석' 멀티미디어 실태분석결과 음악에 관한 실태가 가장 높게 나왔다.

양성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인 불교음악의 뿌리는 단연 범패일 것이다. 해외 공연이나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성 시연도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면면히 이어지는 우리 불교음악의 진수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하는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리 새로운 시도와 퓨전음악이 창작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조류로써 이 또한 시대가 변하면 바뀌어 갈 하나의 조류일 뿐이다. 그러나 전통은 그 근본인 것이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정확히 전수하여 앞으로도 범패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7. 독창적 홍보의 부족

현대는 정보화시대에서 후기정보화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시대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광고, 홍보, 서비스의 중심이다. 기존 블로그 , 카페 등 커뮤니티 마케팅과 더불어 더 쉽게, 더 간편하게 콘텐츠 확산을 통해 브랜드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유튜브(You Tube)에서 보면 한국의 불교는 대만, 중국, 티베트 , 베트남보다도 더 변방을 차지하고 있다. 올라가 있는 불교음악도 대부분 스님들의 수행에 관계된 염송들뿐이다. 또 사찰의 홈페이지나 불교도인들끼리만 소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불교음악을 과거 방식으로만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긴 불가능하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7]는 모든 업계에서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 불교음악도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불교음악 블로그와 연동을 통해서 콘텐츠 연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승가의 의식 전환

포교의 핵심은 사부대중이 모두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도 그 핵심에는 스님이 차지하고 있다. 승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포교의 방식과도 연결된다. 그동안 불교음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는 승가가 음악분야에 대해 소홀히 대한 영향도 크다. 계율에 음악이나 춤을 멀리하라는 구절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자칫 마음을 어지럽혀 수행에 방해될까 염려해서 나온 것이지 음악이나 춤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대가 변화함에 지켜나가야 할 부분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임에는 분명하지만 민족 종교는 그 민족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음악이라는 것이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변화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승가에서는 포교의 한 일환인 불교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다. 음악이 단순한 교양과목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혜민스님' 의 트위터[8] 활동이 화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가 스님이기 때문이다. 불교인에게 스님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즉 스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님 한 명이 불교음악의 일선에서 활동하여 인

7) 일상에서 친구·신한 배·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한다. 간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8) 트위터계정(@haomins.nim) 2011년 8월 20일 현재 회원수가 2만 6961명이다. 미국 하버드나 석사, 프린스턴나 박사, 핸프셔대 종교학과 교수이다. 최근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내한했을 당시 동역을 맡기도 했다.

지도를 얻거나 화제를 가져올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함도 중요하다. 조화와 균형 있는 불교음악포교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불교음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 기독교의 음악인 CCM과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연구 방법을 제기하였다. 음악이 종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과 현대불교음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웃종교인 기독교의 경우 CCM이라는 음악장르가 예배의식에 중요한 요소로 쓰이면서 놀라운 발전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 불교계가 포교의 한 일환으로 참고·원용하여 현대불교음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러기 위해 본론에서 먼저 현대불교음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불교음악인 범패와 찬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CCM의 정의와 역사 장르와 특징 등을 살펴보면 불교음악이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현대불교음악의 현황을 사이트를 검색하여 살펴보았다. 인터넷상에서 불교음악을 검색했을 때 사이트의 성격을 알아보니 대부분 홈페이지나 카페의 한 영역인 경우가 많았고 음반 판매 사이트나 합창단이나 연주회 사이트 등이었다. 또 기사를 통한 불교음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연주단이나 합창단이 많고 불교계의 무관심으로 음악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공연의 시도는 불교음악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해 CCM의 경우는 불교음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반과 사이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도 병행되고 있어 후학 양성의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음악은 학과도 부족하고 커리큘럼도 이론위주의 교육이라 졸업한 후에도 한정적인 활동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오디션이나 콘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공중파방송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시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 발맞춰 홍보의 방법도 같이 변화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조사와 다양한 홍보마케팅의 준비도 중요하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할 때 불교음악은 CCM과 같이 종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양동토, "새로운 대중음악 CCM", 서울, 천일미디어, 1995.
- 법현 스님, "양산재 연구", 우주사, 1997.
- 석정호, "존웨슬리의 크리스천 규칙의 성격과 그 수용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1998.
- 장우혜, "예배에서 기독교 대중음악(CCM)사용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이한근, "대중음악의 관점에서 본 CCM연구 – 기스펠 장르와 한국 CCM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한국나 대중구호예술대학원, 2008.
- 박민성, "기독교문화 콘텐츠 발전방안 연구 – 현대 기독교 대중음악(CCM)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0.
- 이성강, "현대기독교음악을 통한 청소년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2003.
- 박소연, "국내 포털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형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 101-115, 2010.
- 박상배, "CCM은반세적의 과정", 석사학위논문, 성명대학교 대학원, 2008.
- 조현, 허은승, 이지환, "알로올 의존자에 대한 요가 및 음악치료의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1, No. 6, pp. 2144-2151, 2010.
- 성은혜, "예배에서 기독교 대중음악사용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박상진, "21세기 불교음악의 고찰", "불교문화연구", pp. 391~406, 2000.
- 남연식, "승려의 정보화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소임을 산다는 것

지원/ 사교과

길고 길었던 봄철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철도 벌써 반이 지나 차례법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중스님들은 모두 건강하십니까? '소임을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사교반 지원입니다.

차례법문자로서 대중스님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도반스님들이 봄철 작은 별좌 소임 산 얘기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학인스님들은 운문사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소임을 살게 됩니다. 중소임부터 경소임까지 다양한 소임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고 낯설고 어려운 일은 거부하면서 원하는 소임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여 회피하고 도망간다면 자신의 좁은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볼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요원해집니다.

소임을 산다는 건 기회입니다. 자신의 꼴을 보고 내 그릇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물론 저도 이제까지 저에게 오는 소임을 항상 흔연히 받아들이면서 산 것은 아닙니다. 힘든 소임은 온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운문사의 소임 결정 방식으로 지원자가 너무 많거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때의 해결 방법 중 하나인 가위 바위 보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해서 산 소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로 그 기회가 왔든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인연들이 생겨나고, 은연중에 스스로 정한 한계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임을 산 지난 봄철은 윤달이 있어 방학까지 11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소임을 살기 전까지 음식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200명 가까운 대중의 음식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철 소임을 살고 난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하려면, 미리 요리방법을 찾아 메모하고 양념은 비율에 맞춰 계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만 소임을 살기 전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소임을 사는 동안, 몸도 마음도 허한 치문의 첫 철을 허기지게 한다는 원망 아닌 원망을 듣기도 했으며 삼일 연속으로 저녁마다 면 요리를 내서 '면 요리 금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긴 시간만큼이나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해도 결코 잘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을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각각 생긴 모습이 다르듯 다양한 성격과 생각,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보아야 하는데 제가 멋대로 정한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해 그것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하면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며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제 안의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무지하기까지한 '나'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습니다.

소임을 사는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른 척 외면하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소임을 살지 않았다면 나의 모난 꼴을 정면에서 마주할 기회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주머니에서 튀어나올 송곳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면서 오히려 남 탓만을 하는 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경계에 부딪치며 살아갑니다. 그 경계는 일 또는 사람, 환경일 수도 있으며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계로 인해 소임을 잘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과 결과에 수긍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거부하고 남 탓을 하거나 책임회피를 한다면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꼴을 봐줄 수 있다면 당연히 남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내일의 나는 조금은 부처님께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간절히 발원하며 오늘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심귀명례

나경 / 사집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 본다. 강원 생활에 접어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치문이라는 개울물을 지나 이제 사집, 제법 물살이 생겼다. 그 물살과 함께 사집 첫 철, 나의 소임은 부반장이었다. 밭을 담당하고 있어 자주 보게 되는 이목소. 그 이목소를 바라보고 있으면 작년, 같은 장소에서 이목소를 바라보던 치문 때의 내가 생각난다.

치문 봄…. 설거지를 하고 나오다 문득 이목소를 쳐다봤다. 따뜻한 봄 햇살에 이목소는 반짝 반짝 나의 눈을 자극하며 마알간 속을 보이며 멈춘 듯 하지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치문……. 나는 매일매일 마음이 일렁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던 나에게 강원이라는 곳은 힘든 곳이었다. 그러다 보게 된 이목소, 이목소를 보며 생각했다. '머리 깎고 먹물 옷 입은 스님이 바쁜 강원 생활에서 많은 걱정들로 마음을 산란하게 가지면 안 되지!'

이목소는 나에게 마음에서 톱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고요하지 않을 때 저절로 눈이 가는 곳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단지 이목소에 흐르고 있는 물의 겉모양만 봤을 뿐, 그 물속을 보지는 못했다. 자연의 여러 경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물속 깊이깊이는 더 고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 번 비바람이 지나가면 더 맑고 깨끗하고 깊어 보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공부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저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치문이었다.

치문 때도 힘들었지만 사집에 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집 첫 철…. 지금 생각하면 부반장 소임은 나 자신을 하심할 수 있게 해준 감사한 소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진심瞋心이 밖으로 표출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반 스님들을 뇌롭게 하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했다. 마음속으로 짐을 쌌다 풀었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럴 때마다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다. "하심하면서 사세요. 나경 스님 평생에 또 언제 많은 대중에서 소임을 살아보겠어요. 그저 하심하면서 살아요." 행자 때부터 '하심' 하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심' 이 어떤 것인지, 그냥 '나' 를 낮추는 것인지, '하심한다' 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많이 들었다.

부반장 소임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소임이었다. 모든 울력과 치문반 스님들의 울력

인수인계…, 그리고 잘못하면 들려오는 질타와 그에 따른 책임감 등등 모든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다. 책임이란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중 속에서의 부반장 소임은 '나' 자신과의 한판 전쟁이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히고, 진심나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나는 '나'라는 집착 속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지 나 자신이 싫어졌다. 내일의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아도 매일 뜨는 해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진언과 '나'라는 것이, '하심'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가는 한가지 생각이 있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작아지다 작아지다 작아진다라는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이 하심이다.

이것이 정확한 하심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하심이라는 의미를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도반스님이 또는 어느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나와 다투거나 자신 스스로 상을 낼 때,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나'를 낮추고 낮춘다는 그 생각조차 들지 않게 실천하게 될 때, 하심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경계에 부딪혔을 때 100%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노력하면, 언젠가 '하심'하는 수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언가를 항상 잘 빠뜨리고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나로 인해 반스님들과 대중스님들을 뇌롭게 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봄철이었지만 마음을 많이 열어 보이고 하심할 수 있었던,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많은 공부가 된 소중한 소임이었다.

따뜻한 햇살과 바람에 반짝반짝 잔잔히 흘러가는 기억 속에 있는 치문 때의 이목소와 같이 부반장이라는 소임 역시 강원에서의 애잔한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오면 물이 불어나고, 모든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쓸고 내려가 다시 맑은 모습을 드러내는 운문사의 이목소처럼 나의 마음도 힘들고 아팠던 만큼 맑고 깊어졌으리라 생각한다.

'나'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항상 하심하는 스님이 되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을 낸다고 해서 같이 진심 내어 어리석은 스님이 되지 않기를…….

모든 경계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홀로 외로울지언정 마음의 틈이 생겨 헛된 인연에 끌려 다니지 않기를…….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

출가 그 후, 운문인으로 서기까지

종유/ 사미니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삶이었다. 일상의 궤도는 늘 한결같았고, 그 일상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던 삶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시시각각 일어나는 상황과 마음은 끝이 없었다. 끄달리고 슬퍼하다 지나고 나면 아득해지고 웃음 짓다가도 다시 새로운 경계가 찾아오고, 이런 반복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어쩌면 이 삶이란 것도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텐데 왜 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의연해질 수 없는 것인지.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출가를 생각했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올곧이 설 수 있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날 흔드는 사람의 경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무상하다는 걸 담담히 자각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고 싶었다.

일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발심하지 못하고 있던 내게 출가는 우연 같지 않은 우연으로 다가왔다. 암자로 떠난 일주일간 휴가에서 만난 한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 생에 처음으로 잡념 없이 기도한 것도, 출가를 진지하게 권유받은 것도, 기도발원이 출가가 된 것도 처음이었다. 마을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몇 달 후 출가를 했다.

나의 출가사찰은 선방스님들이 공부하는 선원인데, 당시 동안거 결제기간이었던 그곳은 제법 많은 선방스님들이 있었다. 소임 어른스님들과 선방스님들, 보살님 그리고 앞서 온 아홉 명의 행자가 있던 우리 절. 승가에 맞는 규율과 대중생활의 토대를 배우게 된 시간들. 평소 느긋한 성격에 일도 익숙지 않은 난 많은 걱정을 들었다. 대중이 있는 곳이기에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신중해야 했고, 잘못에 대해 말하기보단 잘못 자체를 수긍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배운 대로 알아차리며 습득하고 하심해야 하는 시간들이었다.

당시엔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만큼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고, 배운 것들이 습으로 익지 않아 너무 힘들었

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덕분에 대중생활과 대중외호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자연스레 대중이 많은 운문사로 행로를 결정하게 된 것 같다.

지난 봄철의 시간들. 떠올려보면, 입학 이후부터 새내기 치문반이 갖는 낯섦과 긴장 속에서 바쁘게 지낸 순간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의 날 지켜주고 있는 시간들.

첫 철이 지났다. 윤달이 끼어 길고 길다는 우리 치문반도 어느새 방학을 맞았다. 도량 내 이곳저곳에서 연예인 부럽지 않은 다양한 스케줄(?)로 많은 것을 경험한 우리 치문반 스님들. 함께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공고해진 우리들만의 방학.

방학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운문사만의 초파일을 맞은 것이다. 한 달이 넘는 연등접수기간, 만 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연등을 달았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시험합격과 소원성취라는 원을 담아, 운문사 도량 내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초파일 운문사를 방문한 수많은 신도분들의 만세루 공양. 배식부터 마무리, 정리까지 일사불란하게 최선을 다해준 그들의 정성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또한 모든 대중이 맡은 바 할 일을 다 하였고, 나 역시 신심 내어 초파일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초파일의 저녁예불은 기억 속에 오래 남으리라. 그날 밤, 법당 안에서 시작된 석가모니불 정근. 법당 앞 은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연등 사이로 행렬이 계속 됐을 때 찾아오는 나지막한 감동. 가슴 속부터 목울대를 타고 넘어오는 "석가모니불"이 단지 외침이 아니라 그 자체 기도와 염원이 되어 준 순간으로,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으리라고.

붙잡히고 막히지 않은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의 길이었다. 삶이 나에게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으며,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 내 추구의 길이었다.

– 류시화,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중에서 –

일 년도 한 달도 아닌 오늘만으로도 급급한 나날이 얼마나 많은지, 소소한 일상이라고 무심히 넘기기엔 하루의 순간순간이 때론 얼마나 길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나 당신 그리고 대중 속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오고가는 감정 그리고 변화무쌍한 생활의 기복들. 연기법의 이치라 이해하며 덤덤히 받아들이기엔 얼마나 강한 파장으로 뒤흔들어 놓는지, 이러다 삶이 나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삶을 놓아버릴 것만 같아서 지레 겁부터 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걱정부터 하다 많은 걸 놓치고 더 큰 걱정을 듣는 악순환이 내겐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 말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나니까 지나가 있고, 멈추지 않으니까 다시 무언가를 움직거리며 하고 있는, 고정불변하지 않는 '나' 라는 존재를 긍정하고 또 긍정하며 또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귀감이 되고 있는 운문사 대중스님들께 뭉클함을 느끼며, 힘을 내겠다고. 지난 한 철 놓치며 아쉽게 보냈던 수많은 기억에 대한 반추는 이제 멈추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류시화 시인의 말처럼 승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용기를 갖겠다고', 가늠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지 않겠다고', 평생토록.

물을 건너다

법일/사집과

切忌從他覓　밖에서 찾지 말라
招招與我踈　점점 나와는 멀어지게 되나니
我今獨自往　내 이제 홀로 가매
處處得逢渠　어디서건 그와 만나나니
渠今正是我　그가 바로 나여도
我今不是渠　나는 이제 그가 아니로다
應須恁麼會　응당 이렇게 깨달아야
方得契如如　비로서 如如에 계합하리

–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 –

이 선시는 동산양개가 물을 건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친 후에 지은 게송으로 오도송의 효시가 된 시이다. '봉거계逢渠偈'라고도 하며, 물을 건너다 지었다하여 '과수계過水偈'라고도 한다.

동산양개 선사는 중국 선종의 5종 가운데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스님이다. 어린 나이에 《반야심경》을 암송하다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가 없다는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자기의 얼굴을 만지면서 스님에게 물었다.

"저한테는 눈 · 귀 · 코 · 혀 · 몸 · 생각 등이 모두 있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는 겁니까."

스님은 깜짝 놀라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설산의 영묵 대사에게 소개하여 머리를 깎게 하였다. 21세 때 숭산崇山에서 구족계를 받은 후 남전보원南泉普願(748~834) 선사를 찾아가 깨달음을 구했고, 또 위산영우潙山靈祐(771~853)를 참례하여 무정설법에 대해 물었으나 얻은 바가 없었다. 위산 스님은 동산 스님을 운암담성(雲巖曇晟,782~841) 스님에게 보냈다. 동산 스님이 운암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 어떤 사람이 스님의 초상화를 그려보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 주려무나.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라니……. 동산양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동산은 운암이 입적하신 뒤에

재를 지내기 위해 사형과 함께 위산으로 가는 도중에 담주에 이르러 큰 개울을 건너다가 우연히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예전 일을 크게 깨달아 시를 지었다. 그 후로 자신을 깨우쳐 준 운암의 법을 이어 나갔다.

"내 이제 홀로 가매 어디서건 그와 만나나니 그가 바로 나여도 나는 이제 그가 아니로다."

가고오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진여眞如와 만난다는 것이다. 동산양개 스님은 《조당집祖堂集》에서도 간곡히 당부한다.

"하늘과 땅 사이 끝없는 우주 가운데 보배가 있으니 아무도 몰래 이 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밝고 신령하게 모든 것을 알아보지만 안팎이 텅 비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보배가 있는 곳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찾아서도 안 되고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밖으로 바삐 헤매는 것이 제 성품을 들여다보는 것만 못합니다. 청정한 그 성품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바로 이 자리에서 생겨나지요. 수행자가 보는 눈은 이 같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남에게 구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길(道)은 스스로 가야하듯 도道는 스스로 닦아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진정으로 인과를 믿는다면,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곳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요, 수행이다.

불교교리와 절집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일자무식이었던 내가 지금은 운문사 사집반이다.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서로 논하는 강원의 전통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다. 출가해서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많은 인연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었다. 인간人間은 '사람들 사이의 존재'이다. 애당초 인간의 삶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규정된다. 그동안 대중이 공부시켜 주는 줄도 모르고 대중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있었다. 환경에 대해, 일체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진瞋의 시작이요, 진瞋의 뿌리라고 했다. 왜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을 이렇게 뒤늦게서야 만나게 되었을까. 연기緣起가 곧 깨달음이요, 대중이 공부시켜 주고 있음을 요즘엔 계속 되새기고 있다.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그것조차도 초월한 생생한 그 자리. 그 극치를 살린 것이 선禪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자리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이다.

"禪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저 개울 물소리가 들리느냐?"
"네, 잘 들립니다."
"그럼, 그리로 들어가자."

약천사로 뛰어 옵서양

– 제주도 약천사를 다녀와서 –

엄조/ 사교과

비 내린 후의 청명한 하늘과 시원스레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며 제주도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만큼이나 가벼웠다. 한반도의 육지에서 92km만큼 떨어져 있는, 야자수의 이국적인 풍경과 바다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제주도,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 수도 있는 그 제주도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한 사찰이 있다.

한국 전통양식의 전각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적광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주도 템플스테이의 명소로 손꼽히는 약천사가 바로 이번 사찰탐방의 주인공이다. 약천사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중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면 바로 약천사 앞에 내리게 되는데 탁 트인 바다와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약천사의 지형적 위치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

절 입구에서 약천사의 대웅전까지는 제주도의 명물인 감귤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동글동글 노랗게 달려있는 감귤을 하나 따먹고 싶은 생각에 보고 있으니 주지스님께서 아직은 제대로 익지

않아서 맛이 들지 않았다 하신다. 그 많은 감귤을 보며 어떻게 참으시냐는 질문에 주지스님께서는 빙긋이 웃음을 지으신다. 단지 하나의 감귤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수행 역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대로 푸욱 익어 그 수행의 맛과 향이 그윽해질 때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우리의 일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감귤 향에 취해 구부러진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약천사의 대적광전을 만날 수 있다.

약천사의 대적광전은 한국 전통양식의 법당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큰 29m 높이의 조선초기 불교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의 웅장한 구조를 기본으로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의 3층 구조를 응용하여 설계되어 다른 곳과 그 웅장함부터가 다르게 느껴진다. 더불어 정교하고 단아한 색감의 단청은 웅장한 대적광전에 다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면을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빛을 발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8층 높이지만 지하 1층, 지상 5층이 통 층으로 되어 있고 법당에는 8만의 작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약천사의 대웅전…. 조심스레 고무신을 벗고 법당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본다.

대적광전의 내부는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면에는 주불로 9m의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좌우로 약사여래부처님과 아미타여래부처님이 함께 있다. 세 부처님 뒤로는 경북 문경 대승사의 후불탱화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후불목탱화가 있는데 그 정교함과 섬세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법당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좌우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2층 또는 3층에 올라서 밑을 내려다보면 법당의 웅장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법당을 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에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황룡과 청룡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2층에는 절을 만들 때 시주했던 불자들이 동참하여 만든 8만개의 보살이 전시되어 있다. 3층에서는 부처님의 상호와 독대를

할 수 있다. 부처님과 눈을 맞추며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자니 꼭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던 손오공이 된 기분이다. 같은 층의 양 옆에는 다섯 개의 윤장대가 있는데 천천히 돌리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

대적광전 밖으로 나오면 왼쪽으로는 종각과 운판, 오른쪽으로는 범고와 목어를 놓은 범종루가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범종루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약천사의 범종루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대적광전을 지키는 사천왕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그 두 개의 범종루 사이에 펼쳐져 있는 제주도의 넓은 바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고픈 충동을 느끼게 된다.

대적광전 뒤로 올라가면 천연동굴 형태의 굴법당이 있다. 주불로는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로 백의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굴법당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약천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원이 있다. 이 자광원은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로 20명 정도의 장애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다양한 재활치료와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약천사, 또한 모든 일을 세세하게 배려하시는 주지스님의 영향으로 이 자광원 식구들의 표정은 다른 재활센터보다 밝아 보였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해맑게 웃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벽에 붙은 문구가 보였다. '삼호운동三好運動'이 삼호운동은 신구의身口義 삼업을 잘 닦아 복을 쌓고 활기찬 오늘을 살며,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실천자가 되자는 의미로 첫 번째는 호사유好思惟, 두

번째는 호언설好言說, 세 번째는 호행동好行動이다.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고 둘이 만나면 좋은 말로 대화하고 셋이 모이면 좋은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약천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주지스님은 덧붙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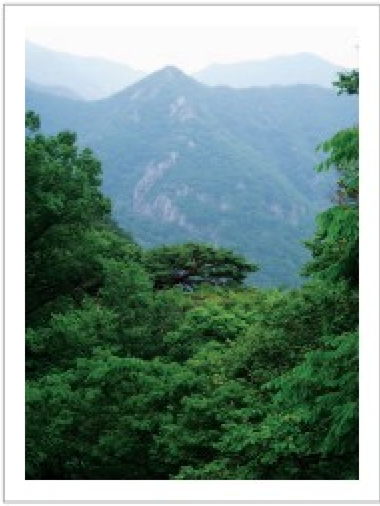
약천사를 내려오는 길에는 오백나한전과 삼성각이 있다. 오백나한전은 약천사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곳이라고 한다. 보통 오백전에는 오백나한님의 전면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곳은 은해사 거조암과 같은 배치로 오백나한님들이 방을 한바퀴 돌아 앉으시고 가운데 중좌까지 계시기 때문에 참배하고 있으면 나도 꼭 나한이 된 기분을 나게 한다. 약천사의 오백나한님들은 모두 천으로 가사를 입혀 질감을 잘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온화한 색감과 익살스러운 표정, 해를 머금은 위치상의 분위기로 인해 따뜻한 느낌이 드는 오백나한전…, 웅장한 대적광전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오백나한전 위에는 약천사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는 삼성각이 있다. 이 삼성각에서 지금의 약천사가 있게 되기까지 모든 불사의 안전과 빠른 성취를 발원했다고 하니 어떻게보면 약천사에서 가장 소중한 곳일지도 모른다. 약천사 삼성각의 독특한 점은 보통 삼성각에는 칠성님과 산신님, 독성님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 이곳은 나반존자님을 주존으로 모시고 있고, 좌우보처로 용왕님과 산신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끝없는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약천사가 이제는 한 종교단체의 사찰을 넘어서 제주도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뜬 새벽, 법당에서 간절히 예불을 모시고 나오면서 맞을 수 있는, 살포시 볼을 쓰다듬고 지나가는 제주도의 바람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랴…,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이다. 탁 트인 바다와 산사, 그리고 전통사찰 체험이 그리워진다면 이번 여름 망설이지 말고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산색山色



가까운 산은 푸르스름한 것이 마치 남색인 것 같고, 멀리 보이는 산은 거무스레한 비취빛인 것이 마치 남색에다 청대[1]를 물들인 듯하니, 그렇다면 과연 산의 빛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산색은 다름이 없다. 다만 시력에 차이가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차츰 멀어질수록 푸른빛이 비취빛이 되고, 먼 곳으로부터 차츰 가까워질수록 비취빛이 푸른빛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푸른빛은 그럴 만한 인연이 모여 푸르고, 비취빛은 그럴 만한 인연이 모여서 비취빛이 되니, 비취빛이 환화일 뿐만 아니라 푸른빛도 또한 환이다.
대개 모든 존재가 모두 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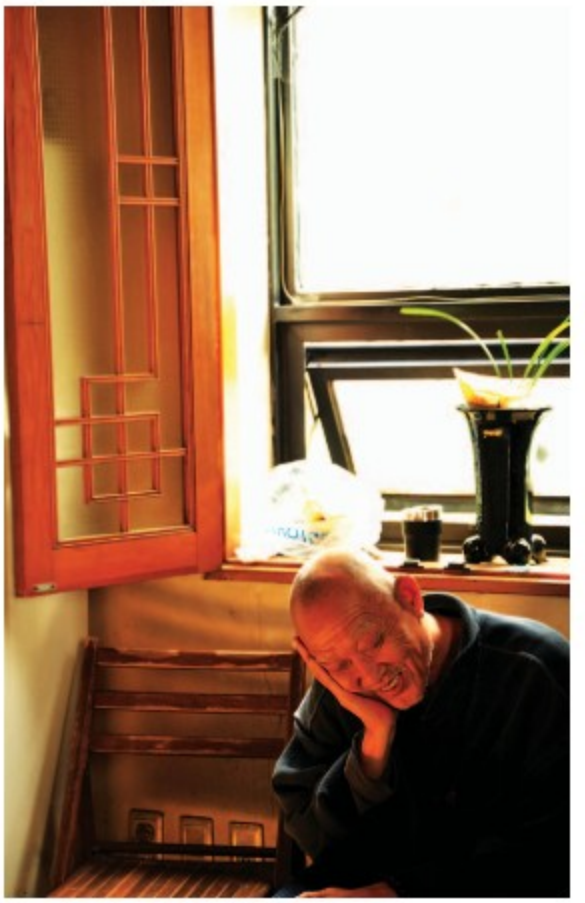
– 운서 주굉, 『죽창수필』, 〈산색〉 전문 –

1) 청대 靑黛 : 쪽으로 만든 물감

자유로운 영혼, 종림 스님

도우/ 대교과

2011년은 고려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였다. 작년 해인사에서 있었던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있었던 국제회술대회, KBS다큐멘터리 〈다르마〉 등이 고려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초조대장경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고려시대 1011년에 처음으로 대장경을 새겼다는 말이다. 초조 대장경이 몽고침입으로 불타 없어지고 다시 만든 것이 재조대장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그리고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 사이에 의천 스님의 교장총록, 이 세 가지를 아울러 고려대장경이라 한다. 이번에 우리가 탐방할 분이 바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종림 스님이시다.



탐방가기 전

"누군가와 밤 깊도록 만화책이라도 함께 읽고, 만화책 읽는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논할 수 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라고 하신 종림 스님의 인터뷰 글을 보았다.

'혹여라도 머터러운 언행으로 어른스님께 실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콩닥이던 마음이 가만히 잦아든다. 비록 글이지만 한 줄의 말씀이 청아한 봄바람처럼 따뜻한 위로가 된다.

종림 스님께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이 있다

'겨자씨 한 알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부처님 말씀과 같은, 우주만큼 방대한 대장경을 어떻게, 그 작은 CD에 담을 수 있으셨을까?'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초조대장경 인경본을 모아 디지털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자유롭고 거침

없는 스님을 가까운 이들은 스님보다는 이웃집 할아버지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스님의 책《망량의 노래》에서 스님의 사유는 날카롭고 예리하다. 양날을 가진 스님에게 고려대장경연구소 사업을 20년 동안 추진해온 데 대해 원력이 궁금했다.

"원력까지는… 하하 거기까지 계산된 게 없었어. 불교개혁운동이 한창이다가 80년대 말에는 완전히 와해되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노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시작했지. 그냥 '해볼 만하겠다' 였지 가능성도 없었어. 만약 기술적인 것, 사업적인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지.(웃음)"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그렇게 될 일이었다는 듯이 편하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스님께는 비범한 출가의 연이 있으셨을까?

"특별한 건 없었어.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밀양이 미륵부처님 나올 땅이라고 해서 절에 갈까 생각은 해봤지만,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과 출가를 고민하다가 그냥 출가했어."라며 가벼이 말씀하신다. 그 옛날 강원 개혁을 주장하고, 7년 동안 선방을 다니면서도 화두 받기를 거부하는, 비수좌를 자청하시면서까지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걸어가는 스님의 도道에서 스님의 '그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미한 '그냥'이 아니다. 더없이 날카롭고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태산의 무게로 지니고 있는 진중함이다. 스님의 털털하고 자유로운 거동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단호함이다.

30여년 전 우연히 칼세이건의《에덴의 용(인간지능 발달사)》이란 책을 읽고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한다. 이 인연은 현 시대, 디지털 세상에 걸맞은 대장경 전산화라는 초유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 셈이다.

문득, 높은 세납에도 불구하시고 아직도 만화책 운운의 열린 마음을 지향하시는 스님의 걸림 없는 마음과 열려있는 사고, 경계에 굴하지 않는 근성과 노력을 지닌 스님이시기에 이렇게 방대한 불사도 가능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해태심이 없는 선재이기에 부처님의 큰 불사의 연이 주어지고, 또 방일하지 않은 수행력이 있었기에 세계 모든 이들에게 법보시할 수 있는 공덕의 큰 바다(인터넷)인 과를 창출하게 된 것이 아닐까.

스님의 과업을 통해 새삼스레 되새겨 본다. 우리의 삶에는 연기도 인과도 여과없음을 말이다.

학인들의 일대사를 여쭙다

"깨달음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기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어떠한 쟁점 한가운데에 있어도 있을 수 있다."

__ 스님께서 해인사 강원에 다닐 때, 도서관, 진문상사초빙 교육 등 A4 100쪽에 이르는 '강원개혁서'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강원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강원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가연령이 높아진 지금 학교교육 방식을 따르는 것은 흐름에 늦음이 있다. 지식은 이미 충분한 상태로 출가하기 때문에 강원교육은 불교학으로써 1, 2년제로 끝내고 빨리 분야별로 실전에 가서 일을 익히는 게 좋다.

교육이념으로서의 개혁을 말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일단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만 이루어져도 좋겠다란 생각이다.

__ 재가자들이 스님보다도 더 열심히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도 출가 전에 더욱 불교를 알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자들은 학자일 뿐, 스님들이 몸으로 체득한 것에 비할 순 없다. 오히려 불교 이론화에 대한 조력자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__ 얼마 전, 초기경전을 버무린서 위성에 대해 글 있습니다. 위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장경을 전체로 봤으면 좋겠다. 위경도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을 테지만 이데올로기 꼭대기에 놓고 보면 안 된다. 연기적인 논리 아래에 놓고 말을 해야 한다.

4성제, 연기를 기초에 두고 보며 그 외의 확대해석부분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장엄으로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다. 위경엔 서민들의 원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좋다. (웃음)

__ 초기불교를 비롯한 남방불교 수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간화선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비스님와 간화선의 내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남방불교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수행에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남방불교 수행의 흐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 내부에서 봐 봐야 보이지가 않아 나가서 공부하다 보면 간화선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__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감, 회의감, 퇴굴심 등등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안 풀린다.

예전 나의 경우엔 아무도 없는 지리산 산골 또는 사막 속으로 가서 생각을 끊고 휘적휘적 다니다 보면 잡념이 끊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스님의 혜안으로 보실 때, 학인스님들이 졸업 후 활동하면 좋을 사회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 개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되면 일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사회에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빈 곳을 조금은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영혼, 종림 스님

강원에도, 같은 선방에도 1년 이상 있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스님께서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면서는 한 곳에 머물고 계신 지 벌써 10년째다. 서울 안암동의 고려대장경연구소. 그보다는 드높고, 산맥이 끝없이 어우러져 펼쳐진 지리산 토굴 금대가 어울릴 것 같은 스님에게 연구소에 앉자마자 "서울이 답답하지 않으시냐" 물었었다. 앞도 뒤도 없는 우문에 "일에 몰두하다보니 서울이다 뭐다 그런 생각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산이다 서울이다, 분별은 질문자의 것이고 당신은 그 경계를 휘적휘적 넘어 다니신다.

화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참선을 한다거나, 술 · 담배에 거침이 없다거나, 강원이건 선방이건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스님의 행적엔 다소 용기가 필요한 과감한 자유로움이 있다.

예전엔 스스로 자유롭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자유로웠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회고하시는 스님을 뵙고 확신이 드는 건, 언행이 자유롭다 하여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언행이 구속되어 있다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예전은 스님의 자유로운 신념의 흔적이며, 10년째 한 곳에서 한 일만 하시는 지금은 큰 역사를 이룬 자유로운 신념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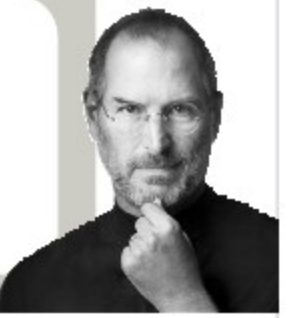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읽었던 청량함이라는 스님의 수식어가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인터뷰 내내 자유로움과 청량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피범보 · 도해

종림 스님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뒤 혜인사 시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여러 선원에서 수행하였고 혜인사 도서관장으로서 일했으며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공부하였다. 1992년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설립하여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오던 끝에 10년 만에 대장경 전산화본(고려대장경2000)을 완성 책은 2005년 종림집설 (광량의 노래)가 있다.

STEVE JOBS "thinking differently"
(A BIOGRAPHY BY PATRICIA LAKIN)

지호/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얇은 책을 보게 됐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절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괴짜 같은 성격이 조금 있는지라 남들이 뭔가를 좋다고 열광하면, 잘 따르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그게 뭔지 살펴보곤 한다. 이번 책도 그렇게 고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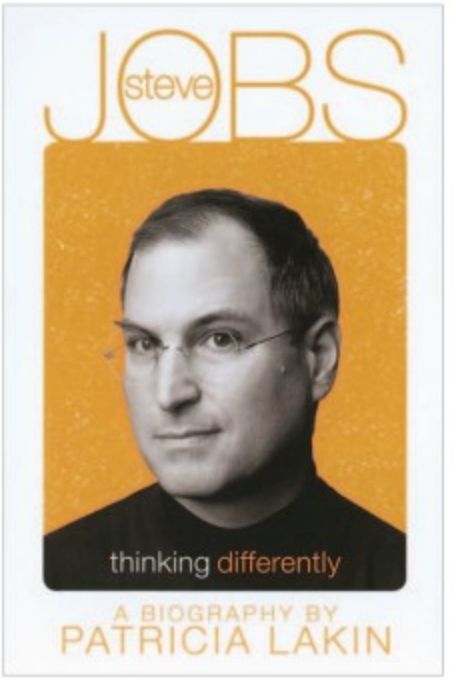
스티브 잡스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이들 잘 알거라 생각이 든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기계를 다루는 솜씨를 옆에서 보고 전자기기와 친숙해지고, 컴퓨터를 만들어 팔고, 그러면서 주문이 늘어나 〈애플〉이란 회사를 차리게 됐다. 남들과 다른 디자인과 성능으로 사람이 불필요하게 노동하는 부분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일대 혁신을 몰고 온 스티브 잡스. 머리가 너무 좋아 평범하길 거부했던 그는 어렸을 적에는 주변과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커서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우상이 된 것이다. 괴짜 같은 성격, 청개구리 같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실천에 옮겼던 그. 엉뚱한 내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어서였을까. 책을 읽는 내내 스티브 잡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를 통해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참선(meditation)을 통해 스스로를 바로 세워 갔다는 점이다. 스승을 향한 열망, 인도의 스승을 찾아가기 위해 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그의 상상치 못한 엄청난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는 잡스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아이디어에 관한 의문과 사업의 힘든 모든 부분들을 '참선'이라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오랜 세월에 걸쳐 매만져 갔던 것이다. 외부로 향한 우리의 시선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좇아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자기내부를 향한 성찰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그의 구도자적인 모습이 스님인 나조

차 뒤를 한번 돌아보며, 부끄럽게 만들었다.

남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거나 남들로부터 왕따가 되는 느낌을 갖는다거나 '내 생각이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과 의심을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등등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달리, 자기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얼 해야 하는지에 몰두했던 잡스의 모습은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스님으로서 살지만, 어떤 스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스님이 되고 싶은지 나 자신에게 잘 묻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가슴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을 벌고자 출가하진 않는다.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출가하지도 않는다.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출가하지 않는다. 스님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내 마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되어 한평생 걸림 없이 사는 길을 택한 이들이다.

자신을 찾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스님에게 참선은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그렇지만 정좌를 하고 복식호흡을 하며, '이뭣고' 만 들고 있는 것이 참선은 아닐 것이다.

"도를 보고 산을 잊은 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또한 고요할 것이요, 산을 보고 도를 잊은 자는 산중도 시끄러울 것입니다."라는 영가 스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 빌딩숲에서 청바지에 검은 티를 입은들, 산문 안 깊은 산중에서 벽만 바라본들, 어느 것이나 장소나 겉모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구도자의 모습은 절실함에 있다고 스티브 잡스는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께서 늘 그러셨다. '이 모든 것이 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헛된 생각을 모조리 잡아 내 마음이, 내 가슴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 힘들어 허덕이는 느낌이 든다면, 무언가에 쫓기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전해주는 생각을 들어줘야 할 때이다. 잡스의 작은 책이 잠깐 마실 나갔던 멘탈을 다시금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권해본다.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본질에 대한 문제는 나의 이 세상이 있는 한 언젠가 한 번은 진지하게 마주치는 문제이다.
이 때 '나'와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을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모든 번거로운 일들이 소멸된 행복한 상태에 이를 것이냐.
그대로 살고자 하면 지금은 편하지만 평생 아주의 테두리에서 갇혀 사는 삶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시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점점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인간이 어느 정도의 사유 능력을 갖춘 이래로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자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나 해 보았을 법한 질문이다. 왜 이러한 심오한 자문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며 이어지고 있는지, 그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거리이다.

전 세계의 70억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순간들과 하루, 그리고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70억 가지의 삶. 이들 각각의 개체들은 세상 곳곳을 그들만의 방식대로 누리고 있다. 각각의 중생들이 자신의 업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의 삶들이 다 다른 것은 또 아니다. 모든 사람은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운다. 다들 태어나고 죽어 간다. 우리 삶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이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모두들 자신이 '나'라는 생각 속에서 '나'를 위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 즉 살아가는 일은 모두 '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 일은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의 인식과 '나'를 위한 욕망.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아상'과 '집착'이라 표현한다. 우리들은 이 '아상'과 '집착', 더욱 줄여서 '아집'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이 세상을 쳇바퀴 돌며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개인인 것이다. 개개인의 삶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똑같이 답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삶의 테두리가 바로 이 '아집'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한 나의 현실은 아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위의 질문들에서 '나'라는 주어만 붙이면 저 문제는 70억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되고 내 현실의 문제가 된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에 '나'라는 것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답을 찾아 볼 차례이다. 이제 '나'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600여 년 전 똑같은 물음을 가졌던 싯다르타 왕자는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나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식과, 모든 욕망을 극복한 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 마침내 그는 깨달은 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을 위해 팔만사천 가지로 답을 알려주신다.

'나'는 네 가지 물질이 인연 화합한 결과이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완벽히 존재한다는 착각으로부터 열두 가지 인연이 비롯되어 생로병사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나'와 '세상'은 인연과 연기작용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고, 인과의 법칙으로 진행된다. 모든 것이 인연따라 지어지고 흩어지지만 우리는 이것에 집착하고 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실상이 아니며 누릴 만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무명을 밝히는 수행을 통해 '나'의 인식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인연으로부터 벗어나 진열반의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금강경의 사상四相과 공空, 능엄경의 칠처징심, 원각경의 인연화합의 차제와 수행방편 등 수많은 경전에서 보이는 모든 비유와 논리들은 모두 이 해답의 다양한 표현이다. 그리고 이 이해를 토대로 실천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설 것을 많은 경전에서 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우리는 쉽게 답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 수행의 길은 힘들고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에 관한 문제는 나와 이 세상이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욕망의 틈 속에서 비쳐지는 자신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당면했다면, 이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명심하자. '나'와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을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모든 번거로운 일들이 소멸된 행복한 상태에 이를 것이냐! 그대로 살고자 하면 지금은 편하지만 평생 아집의 테두리에서 갇혀 사는 삶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점점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될 것이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

▲ 계[illegible] 스님 특강

▲ 소방훈련

▲ 결계포살

▲ 단오날축

▲ 감자캐기 대중울력

운문소식

• 5월 26일	운문유치원(원장 44회 도진 스님) 가족운동회에 교무스님과 대학원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5월 31~6월 2일	태국 마하출라롱콘 (MCU) 대학교에서 열린 '제9차 유엔 웨삭데이'에 참석차 주지스님과 원묘강사스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6월 4일	임진년 하안거결제를 맞아 25명의 선방스님들이 문수선원에서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 6월 6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1일	홍륜 학장스님 학장취임 축하인사를 겸하여 7회 졸업생 선배님들 10분이 대중공양을 다녀갔습니다.
• 6월 13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일본어수업,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6월 16~17일	제 53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연꽃처럼 곱고 향기로운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열려 교화부 스님 34명이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 6월 18~20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계환 스님 '중국불교사' 특강이 2박 3일간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1일	청도소방서에서 주관한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 6월 22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5일	단오날을 맞아 대중스님들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27일	감자캐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6월 30일	김호석 교수님의 '수묵화의 이해'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6일	여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3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5일	부산 전 거사림회 회장 故 이인회 거사님의 49재가 선배님들과 부산거사림회 회원 등 불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7월 27~29일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제34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열립니다.
• 7월 29일	여름철 두 번째 自恣 및 여름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7월 30일	34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김경희 • 김벽기 • 김인돌 • 김철수 • 박영지 • 백윤동 • 연꽃스님
• 이고숙 • 인준헌 • 이기태 • 이복자 • 이영철 • 이정숙 • 이호자
• 장영미 • 최정길 • 허효선 • 황수진 • 송은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illegible]」[illegible]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기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통권 121호,
여름, "짙은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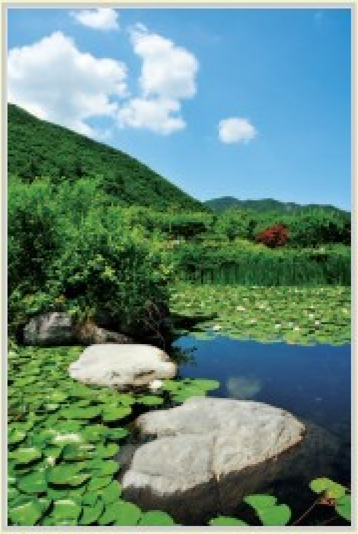
구룡도원 그림 작품 / 1-고 바

운문산으로 가는 두 길 초입엔 계곡이 있습니다. 문수선원 안 길엔 못골, 사리암 너머엔 심심이계곡입니다. 못골에 앉아 물소리를 듣습니다. 물가에 오래 앉았다보면 귀가 밝아집니다. 밝아진 귀로 물소리 속에 들어가 앉으면 물살에 작은돌 구르는 소리도 들려집니다. 도랑도랑 소리 따라 들어가면 돌 속에도 굴이 뚫렸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사람이 복사꽃잎 따라 들어간 곳이 무릉도원이었다 하지요.
운문사를 이리 놓아보고 저리 놓아보고 하는 사이, 짧았던 여름 한 철이 지나갑니다. 바꾼다고 바꾼 것도 나와서 보니 그저 살짝 옮기었을 따름입니다. 이 놓아봄이, 살짝의 움직임이 걸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남은 여름, 이젠 더위 속에 앉았다 나오면 추락에 지쳐 단풍드는 가을이 올 테지요.
우리의 정진도 그렇게 짙어가야겠습니다. — 海

여름이 되면 내리쬐는 강렬한 햇살에 시원하게 비라도 내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장마로 몇 날 며칠 비가 내리면 이제는 화창한 날씨가 좋겠다고 투덜투덜대는 우리의 인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간사함의 극치란 사람들의 생각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간사하고 엉뚱하고 아픈 기억과 생각들이 모여 어리디어린, 하지만 그 뿌리는 깊은, 깨우침이라는 하나의 새싹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자! 운문지의 여름호를 펼치고 있는 여러분~! 습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장마가 지나간 연후의 햇살은 어느 때의 햇살보다도 밝고 청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설사 밝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일 뿐…, 찰나의 지남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화창한 햇살이 되기도, 우울한 장마가 되기도 합니다. 햇살과 장마…,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 静

※ 〈사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초가삼간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편집실 앞에 기고함이 생겼습니다. 제주도 약천사 주지스님께서 만들어주신 삼나무 원목함입니다. 학인스님들의 많은 손을 거쳐 좋은 글을 기대해 봅니다.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구요?
산마루 위에 흰 구름이 많지요
저 혼자서나 즐길 수 있을 뿐
가져다가 그대에게 드릴 수가 없답니다

- 도홍경, 산중에 있는 것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 · 계간] 여름호 · 통권 제 [illegible] 호 · 2012년 7월 20일 발행 · 등록 1996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다-01008 /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진원주) 고문 · 수방 / 편집 · 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녹규 / 편집위원 · 영조, 한우, 능곡, 후시, 성휘, 법상, 혜신, 홍우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영조 / 보스 행운 ... 스님 (제1부표) / 삽화 · 혜묵 / 편집디자인 · WARU(주) (053)426-8395